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

베트남 내 세종학당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NGUYEN THI THANH TAM

베트남 내 세종학당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지도교수 한정훈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NGUYEN THI THANH TAM

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원장	<u>박태균</u>	(인)
부위원장	<u>오윤아</u>	(인)
위원	<u>한정훈</u>	(인)

초록

본 연구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전 세계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현황, 전 세계 세종학당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한류 열풍의 시작과 확대와 함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도 생겼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외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외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들 가운데 ‘세종학당’이 있다. 세종학당은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시작한 이래 2021년 6월 기준 전 세계 5대륙을 커버한 82개국 234개소로 확장하였다. 각 세종학당이 국외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기업, 단체, 현지 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돋보였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 세종학당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세종학당은 2010년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21개소가 설치되어 세계적으로 학당이 가장 많다. 베트남 내 세종학당도 한류와 한국어교육과 함께 성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베트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가장 이르게 보급된 나라이자 가장 발달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베트남 세종학당도 지속적으로 지정되었으며 교육과정, 교재, 학당 운영 등 모든 측면이 재단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내 세종학당에 대해 넓은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대표적 운영 사례 4곳을 선정하여 집중 분석하였다. 선정된 세종학당 4곳은 북부지역 하이퐁(Hai Phong) 세종학당, 중부지역 꾸이년(Quy Nhon) 세종학당, 남부지역 거점 세종학당 그리고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이다. 하이퐁 세종학당은 협력사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교

육 사업들이 있고 긍정적인 수강생 증가 추세가 포착되어 북부지역 세종학당 가운데 대표 사례로 선정되었다. 꾸이년 세종학당은 용산구청과 재단의 성공적인 협업형 세종학당인 이유로 선정되었다. 거점 세종학당의 경우 설립된 지 3년에 불과하나 눈부신 성과들과 거점의 총괄 특징 때문에 소개되었고, 문화원 세종학당은 현지 내 최초 설립된 학당이자 오랫동안 거점의 역할을 수행해옴으로써 거점 세종학당과 비교되면서 분석되었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은 지난 12년 동안 화려한 성과를 거둔 한편, 문제점도 다소 존재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세종학당에서도 관찰된 운영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 학당 설립에 있어 지역 편중 문제, 지원금 정산 문제 등이 그 예이다. 이 외에는 학당명 통합 문제, 사이트 운영 문제 등이 베트남 세종학당에서 관찰된 문제들이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향후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하는 데 수요가 높은 도시 외에도 사각지대, 신흥·잠재 지역에 세종학당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 있던 다양한 교육과정에 현지 맞춤형 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반영한 과정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학당명, 사이트 운영 활동 등 홍보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문화원 세종학당과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에 대한 구분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현지 한국(어)학과 소지 대학 및 사설 어학원, 유관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세종학당만의 특색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현지 세종학당을 포함한 전 세계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의 자료 공개를 보다 활발히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세종학당, 베트남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학 번 : 2020-26692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7
제3절	연구 목적 및 구성	17
제2장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실태 연구방법	19
제1절	연구 방법	1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분석틀	25
제3절	가설	29
제3장	베트남 내 세종학당 운영의 일반적 특징 ...	30
제1절	베트남 내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현황	30
제2절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현황	38
제3절	긍정적 특징 및 부정적 특징	44
제4장	베트남 내 세종학당 운영 사례 분석	48
제1절	하이퐁 세종학당	52
제2절	꾸이년 세종학당	59
제3절	문화원 세종학당	66
제4절	거점 세종학당	73
제5절	소결	78
제5장	결론	82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82
제2절	개선 방안 제언	8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함의	86

참고문헌88

Abstract94

표 목차

[표 1] 지역별 세종학당 관련 학술논문8
[표 2] 지역별 세종학당 관련 학위논문9
[표 3] 분석틀26
[표 4] 2020년 베트남 33개 대학 한국어학과 현황34
[표 5] 2022년 4월 기준 베트남 세종학당 현황40
[표 6] 베트남 내 세종학당 4개소 기본 정보48
[표 7] 하이퐁 세종학당 기본 정보52
[표 8] 하이퐁 세종학당 2022년 1기 강의계획(안)56
[표 9] 하이퐁 세종학당 2022년 2기 강의계획(안)57
[표 10] 꾸이년 세종학당 기본 정보59
[표 11] 꾸이년 세종학당 2022년 1기 강의계획(안)62
[표 12] 꾸이년 세종학당 2021년 2기 강의계획(안)63
[표 13]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기본 정보66
[표 14]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기본 정보73
[표 15] 2022년 2기 거점 세종학당 강의시간표75

사진 목차

[사진 1] 세종학당 교육과정3
[사진 2] (2021년 6월 기준) 베트남 내 세종학당 분포38
[사진 3]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2022년 1기 운영 계획(안)68
[사진 4]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2021년 2기 운영 계획(안)6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2022년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17년 만에, 1992년 12월 22일에 한·베 양국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인 1993년에 처음으로 베트남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하였고, 1995년에 베트남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해외 공영방송이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보급과 함께 한류가 베트남에 유입되면서 지금까지 그 열풍을 이어왔다. 한·베 양국 관계 발전에 한 몫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류와 한국어 교육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어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그 열기가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다.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끊임없는 발전에는 한국(어)학과 소지 대학, 한국어 교육 센터, 사설 학원 등 외에 한국 정부의 한국어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세종학당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의해 2007년 첫 설립 이래 올해 맞이하여 15년의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여정을 거쳐 왔다.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0년대 들어 국외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자 국립국어원은 2007년부터 한국어 보급 추진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세종학당’을 설립하여 한국어 국외 교육 초기 모델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세종학당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세종학당이 운영된 지 5년이 지난 2012년에는 해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였다.

2022년은 세종학당 설립 15주년, 세종학당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세종학당은 2007년에 3개국 13개소로 시작한 이래 2021년 6

월 기준 82개국 234개소를 돌파해 짧은 시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22년 4월 기준 전 세계 지역들 가운데 129개소로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은 학당이 설치되어 있고,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베트남과 중국이 20개소 이상을 운영 중이므로 학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두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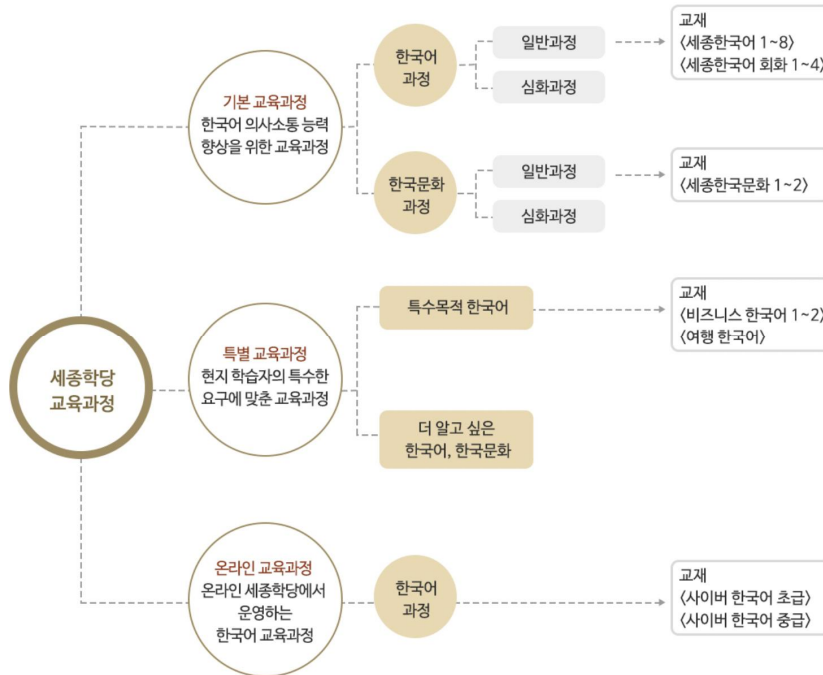
세종학당이 최초로 설립된 2007년에는 740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했는데, 2020년 76,528명으로 13년간 100배 이상 증가해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같은 해 기준 온라인 세종학당 과정 수는 2,274개, 방문자 수는 303,899명, 수강생 수는 19,799명, 모바일 한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누적 다운로드 수는 811,892건으로 집계되어 한국어 학습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2021년 세종학당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부안 예산인 555억 원 중 92.4%를 차지한 것으로 밝혔다. 이 숫자만 봐도 한국어 확산을 위해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종학당의 운영 유형은 크게 일반형과 협업형이 있고, 일반형은 독립형과 연계형으로 세분화된다. 독립형은 세종학당을 운영하려는 국외 현지 운영기관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아 직접 운영 및 정산하는 유형이다. 연계형은 국내기관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국외 현지 운영기관과 세종학당 운영 관련 업무 협약 후 지정 신청하고, 국외 현지 운영기관과 국내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세종학당을 운영하되 국내 운영기관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아 관리 및 정산하는 유형이다. 협업형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재외공관, 공공기관, 기업, 공익법인이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고 운영하는 유형이다. 이 외에도 조금 특별한 독립형 세종학당들이 있는데, 문화원 세종학당, 교육원 세종학당, 거점 세종학당이 그 예이다.

거점 세종학당은 학당이 여러 개소인 국가에 모든 학당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설립된다. 현재 거점 세종학당이 설치돼 있는 국가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자 미주 지역에 학당이 가장 많은 미국 총 3개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 현지 수요 맞춤형 특별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세종학당 교육과정 (출처: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사업마당 > 한국어 교육 지원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온라인 세종학당은 원래 ‘누리 세종학당’ 뿐이었는데,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세종학당’ 이 생겨났다. 온라인 한국어 학습 포털인 누리 세종학당은 2021년 2월부터 한국어-한국문화 정보 포털로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한국어 학습 강의를 온라인 세종학당으로 옮겨졌다. 2020년 4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세종학당은 오프라인 세종학당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된 대체 방안이다.

재단은 한국어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사업, 국내외 협력기관들과의 협력 사업, 홍보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해왔다.

세종학당은 한류의 확산과 한국어 보급에 대한 정부의 취지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세종학당의 발전은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문화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말 아시아권 국가들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의 영향력이 국외에서 급증했다. 한류는 한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아이돌 가수 중심의 대중음악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의 발발과 함께 한류의 영향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SNS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제공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한류 콘텐츠 향유를 위한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한류의 주류였던 K-Pop, 드라마에 힘입어 영화, 웹툰, 게임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팬데믹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하였다.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대표적 한류 스타와 콘텐츠의 인기로 힘입어 “그동안의 발전으로 이제 한류는 한국만의 문화 상품이 아니라, 한국인이 만들고 세계인들이 같이 즐기는 글로벌 문화로 도약하였다”¹⁾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로 힘입어 2000년대 초부터 정부가 한국어 보급을 시작하였다. 한류 열풍은 초창기에 한류팬을 중심으로 퍼졌다면 이제 중년 연령대까지 향유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 결과의 의미는 한국어 학습자도 한류팬 등 젊은 층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와 특성인 중년층을 합류시켜 한국어 교육은 지식인 중심에서 탈피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차원으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어 제1언어 사용인구는 77.3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전 세계 14위(1.004%)이며, 제2언어 포함 사용인구는 79.4백만 명으로 세계 22위이다.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국가가 68개국 937개 대학에 이르렀다. 한국어 해외 보급 성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고 있고, 최근에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제1언어

1) 한국국제교류재단(KF), <2021 지구촌 한류현황>, 26쪽.

로 채택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류 열풍은 한국어 학습에 크게 기여해 온 중대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의 증가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여러 정책이 촉진되었다. 2020년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는 해외 192,286명 포함 총 375,871명,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 응시자는 2018년 기준 16개의 노동자 송출국 357,61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교육기관과 교원들이 물적 기반을 형성하여 지원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국내에는 대학부설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국외에는 한글학교, 한국어반/한국(어)학과 소지 대학, 세종학당 등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글학교가 1,656개교, 대학이 1,389개교, 세종학당이 213개소로 통계되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에서는 국외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대표기관인 세종학당의 운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²⁾ 세종학당은 그동안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과 문화를 보급하면서 문화-사회적으로만 아니라 공공외교, 소프트파워의 도구로 작용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을 펼치는 데 큰 몫을 해왔다. 이제 세종학당의 역할은 단순히 언어 보급을 넘어, 국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확산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유리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성과들과 함께 세종학당을 둘러싼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선행연구나 언론 보도에서는 범용 교육과정의 적합성, 운영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 정산 절차 관련 문제, 교사의 전문성 논란, 세종학당재단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보고서 같은 자료에서는 예산 부족 문제, 세종학당 브랜드의 문화

2) 장미경, 최윤정. (2021).

행사나 시험제도 등이 논의되었다. 이 외에 수요 지역만 위주로 학당 설치하면 사각지대나 신흥-잠재 수요 지역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된 바 있다³⁾.

베트남에서의 세종학당의 본격적인 시작은 2010년 문화원 세종학당의 설립이었다. 2000년대 초반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이 베트남에도 한류가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그전보다 급증하였다. 2010년대 들어 한국어학과가 대학입학시험에서 가장 높은 합격점수를 요구하는 학과 중 하나가 되었다.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한류와 한국문화가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베트남에서는 오늘날 한국어 교육과 한류의 발전이 보급 수준을 넘어 현지 문화의 한 축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고, 베트남은 해당 정책의 핵심국가였다. 최근에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화상 통화에서 한-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베트남과의 협력-교류를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으로 추진해왔으며, 이 협력-교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어 인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국외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의 중심에 서있는 세종학당이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학교에서의 정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아닌 사설학원들과 같이 비정규 과정으로서, 한국문화 보급 대표기관인 문화원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세종학당이 어디에 서있는지 라는 의문이 연구자에게 생겼다. 그리하여 베트남에서 세종학당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있고, 향후 운영 방향이 어떤지 등 세종학당의 운영실태를 연구 주제로 결정하였다.

3) 진대연, 한국어 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다: -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 지금 이 사람, https://www.korean.go.kr/nkview/nklife/2019_1/29_0104.pdf, 78쪽.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먼저 큰 틀에서의 세종학당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본고의 주제인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와 유사한 선행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국외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가운데 세종학당 관련 연구들이 있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한국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사이트에서 ‘세종학당’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국내 학술지 논문은 143편, 학위논문은 113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Tran Thi Huong, 이윤진(2017)⁴⁾이 2016년 상반기에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⁵⁾에 비하면 지난 6년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중국어 보급기관인 공자학원과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소프트파워, 문화외교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세종학당의 교재, 교원 관리 문제, 정책, 운영 현황, 개선 방안 등이 뒤이어 많이 다루어진 주제들이다. 지역별 세종학당에 관한 학술논문은 11편, 학위논문은 6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⁶⁾

4) Tran Thi Huong, 이윤진.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30 (2017): 229-255.

5) Tran Thi Huong, 이윤진(2017)에서 “ ‘세종학당’ 을 키워드로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선행 연구를 살핀 결과, 2016년 상반기에 학위논문 11편, 학술지논문 20여 편이 검색되었다” 고 하였다.

6) 정확한 키워드로 검색 시 얻은 결과. 2022년 4월 12일 기준. (RISS 사이트 검색 및 종합 결과)

[표 1] 지역별 세종학당 관련 학술논문

	지역	논문 제목	학위 구분	발행연도
1	중국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연구: 중국 서안 세종학당을 사례로	석사	2014
2	몽골	해외 한국어교육 정책의 집행과정 및 성과 분석: 몽골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박사	2016
3	칠레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의 문화 외교: 칠레 세종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2017
4	중국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방안 연구: 중국 내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석사	2019
5	중국	문화교육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국 산둥성 세종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2021
6	필리핀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지자체 협업형 ‘산후안 세종학당’ 을 중심으로	석사	2022

[표 2] 지역별 세종학당 관련 학위논문

	지역	논문 제목	발행연도
1	중국	중국 칭다오 지역의 세종학당 운영 현황	2008
2	중국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교 세종학당 현황과 발전 방향	2008
3	일본	오사카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특성 연구	2011
4	베트남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현황과 발전 방안	2013
5	중국	중국 내 세종학당의 문화 교육 현황 - 항저우 세종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	2016
6	러시아	한국의 대외문화 정책: 문화교류 및 국가브랜딩 기반구축을 위한 러시아에서의 세종학당	2016
7	중국	중국 하얼빈 세종학당의 교육 활동	2017
8	베트남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2017
9	베트남	해외 비원어민 화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교육실습 사례 연구 -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한국어교원양성 사례를 중심으로	2020
10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현황 및 보완점에 관한 연구: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2021
11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 - 자그레브 대학교와 자그레브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2021

김재욱(2013)은 2013년에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외의 세종학당 운영 현황에 대한 그 전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선행 연구로 이해영(2008)⁷⁾, 전영근(2008)⁸⁾, 김용경(2011)⁹⁾ 등이 있다. 이해영(2008)은 2007년에 개소한 중국 해양대학교의 세종학당, 전영근(2008)은 중국 광둥외대 세종학당, 김용경(2011)은 일본 오사카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각각 다른 세부 주제와 연구 방법으로 논의하여 개선방안, 지적 등을 내

7) 이해영. “중국 칭다오 지역의 세종학당 운영 현황.”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2008): 697-705.
 8) 전영근.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교 세종학당 현황과 발전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2008): 707-715.
 9) 김용경. “오사카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특성 연구.” 한말연구 0.28 (2011): 25-59.

놓았다.

구체적으로 이해영(2008)은 중국 칭다오 지역 해양대학교의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을 상세히 제시한 후 세종학당과 기타 비정규 교육기관과의 차별화 문제,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 교재 문제, 수료증의 권위 확립 등을 지적하였다. 전영근(2008)은 중국 광둥외대 세종학당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간 진행된 한국어 수업 현황을 보고하였는데, 같은 주제로 같은 년도에 연구를 진행한 이해영이 해양대학교의 세종학당 운영 현황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 외에도 운영 자금 조달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비영리적인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에 단독으로 설립할 것, 자율적 운영 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김용경(2011)은 일본 오사카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특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보여주었는데 학습 동기·방법·기간, 이유, 만족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등 학습자에 중점적으로 주목하였다.

김재욱(2013)의 경우 2012년까지 베트남 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세종학당 5개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학습 목적에 따른 베트남 지역의 한국어 교육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베트남의 각 지역 세종학당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표준화된 지원과 정책 외에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확보,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김재욱(2013) 이후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을 다루는 대표적인 연구로 Tran Thi Huong, 이윤진(2017)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관련 논문 3개 중 하나인데, 2016년 12월까지 베트남에 설립된 세종학당 12개소 가운데 성공적인 운영 기관의 한 사례인 하노이2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해당 논문은 개별 세종학당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세계 곳곳 세종학당의 내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지 실정에 최적화된 세종학당의 모습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같은 해 중국 하얼빈 세종학당의 교육 활동을 다루는 김형기(2017)¹⁰⁾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는 한 지역의 세종학당을 사례 연구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과 공통점에 있는데, 하얼빈 세종학당의 설립·운영 과정 그리고 강사·교과과정·교재 등 한국어 교육과정 외에 한국문화 강좌와 한국문화 행사 현황도 분석함으로써 한 지역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 제시된 세종학당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 중 세종학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 강화, 학습자 계층 확보, 한국 문화 행사 규모 확대, 전문 강사 확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이로써 김형기의 연구는 참고할 만한 요소가 많은 연구라고 본다.

세종학당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2020년에 발행된 장미경·최윤정의 “세종학당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이라는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세종학당에 대한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를 종합하여 연구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종학당 관련 국내 주요 학술 검색 사이트에서 100편 이상의 각종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가운데 논문 제목에 “세종학당”이라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포함된 논문 72편만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종학당 사업이 시작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종학당 관련 연구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세종학당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연구 주제 및 관련 전공 분야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범위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학술논문이 학위논문보다 많았으나 정책 관련 연구의 경우 학위논문이 학술논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진행 시기를 살펴본 결과 세종학당 설립연도인 2007년부터 세종학당재단이 출범한 2012년까지의 논문은 11편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이후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골고루 늘어나고 있다.

장미경·최윤정(2020)은 연구 대상을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 교재 개

10) 김형기. “중국 하얼빈 세종학당의 교육 활동.” 청람어문교육 0.0 (2017): 273-301.

발 관련 연구, 온라인 교육 관련 연구, 문화교육 관련 연구, 정책 관련 연구, 지역 현황 관련 연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후 몇 가지의 평가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종학당 운영의 주체인 학습자와 교원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앞으로 세종학당재단에서 이들에 관한 조사 결과나 연구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내놓았다. 둘째, 전체적으로 세종학당을 타 교육기관과 비교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비교 대상이 중국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물론 중국은 전 세계 세종학당 중 가장 많은 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세종학당 운영 경험이 타국보다 다양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이유가 타당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의 지역적 편중을 점차 극복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술논문 같은 경우 대부분은 세종학당재단이나 국립국어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 중 일부를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이 학술논문 형태로 발표한 것이 많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 논문들 중 한국어·한국문화교육 분야의 논문이 40%나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 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세종학당 연구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지역 세종학당 관련 연구는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에 대한 이은경·박수연·윤경원·박진철(2020)의 논문, 나이지리아 세종학당에 대한 우도혁(2021)의 논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세종학당에 대한 류재원(2021)의 논문 총 3편이 추가되었다. 이 3편의 논문의 공통점은 2020년 이후 설립된 세종학당들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지역 세종학당 관련 연구가 중국을 뒤이어 2위로 많이 진행된 베트남의 사례를 제외하고 보면, 크로아티아의 사례는 러시아 이후 유럽지역 세종학당을 다루는 두 번째 연구이고, 나이지리아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 세종학당을 최초로 다루는 논문으로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첫째, 세종학당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2012

년 세종학당재단 출범 이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기준 전 세계 세종학당이 82개국 234개소에 이른 가운데 지역별 세종학당 관련 논문이 17편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역별 세종학당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 논문 17편 가운데 중국 관련 논문이 7편인 것으로 40% 이상을 차지하여 기존 지역 연구가 중국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논문들 중 지역을 선정했을 때 한 개소의 세종학당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국가의 세종학당 전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이 6편 정도 되는데, 이 6편 중에도 대다수가 세종학당이 하나밖에 없는 국가이거나 세종학당 수가 적은 오래전의 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전체 세종학당을 포괄적으로 종합-분석하는 연구와 아직 연구가 적거나 없는 지역의 세종학당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베트남 전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를 고찰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2021년 6월 기준 전 세계 세종학당 82개국 234개소 가운데 중국 못지않게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에서 종합한 지역별 세종학당 관련 논문 가운데 베트남 관련 논문은 학술논문으로 세 편이 있고, 학위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 그 사실과 더불어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현재 위상을 고려하면 베트남 지역 관련 논문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히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위논문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고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같은 지역을 다루는 논문인 김재욱(2013)과 Tran Thi Huong, 이윤진(2017)의 논문을 아래와 같이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찾아서 본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재욱(2013)은 2012년 연구를 진행한 당시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다수 학습자가 해당 지역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이라는 결과를 얻었다.¹¹⁾ 또, 학습 목적으로는 학문 목적 학습자, 취업

목적 학습자, 한류 목적 학습자 등으로 분류하였고, 베트남 지역의 세종학당에 등록된 학습자 중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서 제외하였다. 4년이 지나 Tran Thi Huong, 이윤진(2017)의 연구에서 세종학당의 프로그램 중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2014년 4월 1일 법무부의 결혼이민비자 발급 요건을 고시한 후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대부분 대도시가 아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수업을 참여하기 위해 세종학당에 오려면 2~3시간이나 걸린다는 애로점을 들면서 이들을 위한 단기 집중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뤄질 부분들 중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부분이 있어 앞의 두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애로점으로 삼았던 결혼이주여성 학습자의 문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학습자뿐만 아니라 그 동안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베트남을 포함한 전 세계 세종학당들에서 초기에 일반 학습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들이 적용되었다면, 세종학당의 양적-질적 발전과 함께 학습자의 수요에 따라 점차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개설되었고 앞으로도 그 수요와 지역 상황에 따라 보다 많은 신규 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Tran Thi Huong, 이윤진(2017)에서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베트남 내 한국 기업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토픽시험 대비반, 통번역반, 예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2022년 세종학당의 현행 프로그램들을 보면 비즈니스 한국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사이버 한국어 과정 등 새롭고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신설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본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11) 김재욱.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현황과 발전 방안.” 동남아연구 22.3 (2013): 387-410.

세종학당 하면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는 강사 문제이다. 김재욱(2013)에서는 베트남 현지인 강사 중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춘 강사가 많지 않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그 동안 세종학당과 세종학당재단 측에서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기도 하고, 9년 전에 비해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을 해서 국어국문, 한국어 교육, 한국학 등 한국어와 한국 관련 전공의 석·박사학위를 수료한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강사를 진로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텐데, 과연 현재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에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었는지도 본고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에 대해 논의한 위와 같은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세종학당의 설립연도가 200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재욱(2013)과 같은 연구들은 오래 전의 연구이기에 현재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학당과 관련된 연구들의 동향을 이해하고 연구의 틀을 구성하는 데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Tran Thi Huong, 이윤진(2017)의 경우, 본고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뿐더러 김재욱(2013)보다 최근의 연구이므로 참고할 점이 많다. 그러나 성공적인 운영의 한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서 다른 세종학당들이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고할 만하고 각각만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으나, 베트남 전역의 세종학당의 포괄적인 실태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

김재욱, Tran Thi Huong · 이윤진의 논문을 비롯한 지금까지 진행된 지역별 세종학당 관련 연구 중에는 세종학당과 지역 간의 연관성, 유형별 세종학당, 학당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논문이 거의 없었다. 중국 지역만 해도 세종학당이 가장 많고 해당 지역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베트남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종학당인 22개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이었는데, 2022년 4월 현재 재확인 결과 중국 세종학당 일부의 폐업으로 인해 베트남 세종학당은 21개소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격상하였다. 이제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전면적이며 연구되지 않은 여지를 개척할 연구가 나올 때가 되었다.

앞의 1절과 2절에서는 전세계 세종학당 운영실태 및 세종학당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종학당은 국외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를 보급한 교육기관이 아니지만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오늘날 국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대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세종학당의 성장과 함께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초기와 달리 이제 세종학당 관련 연구 주제 및 관련 학문 분야는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정책연구, 지역 현황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학당 운영의 핵심 주체인 교사와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거나, 정책과 지역 현황 연구에는 중국 지역 관련 연구가 많아 연구결과에 지역적 편향성 등 같은 한계점들이 포착되었다(장미경, 최윤정: 2021). 연구 범위가 확대되었더라도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술논문이고 많은 학당을 포함한 큰 지역의 세종학당의 운영을 논의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세종학당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양적-질적 확대가 모두 관찰된 베트남 세종학당의 위상과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왜 베트남에서 세종학당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학당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다른 국가에서의 학당 운영 방안을 모색할 때 비교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등 파악할 수 있으면 향후 세종학당이 현재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보다 발전해 나가는 데에 의미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연구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특히 최근의 상황이 어떠한지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전반적 운영 현황을 분석한 다음 유형별로 현지 세종학당을 분류하여 각 유형의 세부적인 운영 현황과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베트남 내 각 지역 사례를 살펴본 후 각 유형 또는 각 지역의 세종학당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베트남 전역의 세종학당의 발전을 위한 제언도 할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세종학당 관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분석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서는 세종학당 운영 현황을 다룬 시 한 나라 내 한 지역의 세종학당을 다루는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한 나라 전체의 세종학당을 다루더라도 운영 현황에 중점을 두거나 유형별 세종학당을 분류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논문이 없었다. 또한 선행 연구 중 대다수가 학술논문인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학위논문으로서 세종학당 관련 연구 중 의의가 있는 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Tran Thi Huong, 이윤진(2017) 이후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에 대한 후속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도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자료인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를 논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보급하는 세종학당의 기능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타 기관, 단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관찰하여 그간 세종학당의 이러한 이중적 기능을 연구 방면으로 삼지 않았던 연구 영역에 새로운 연구 여지를 던지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연구방법을 취했는지, 분석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히고 가설을 설정한다.

제3장은 본고의 핵심 내용이다. 이 장은 본격적으로 베트남 세종학당을 분석할 것으로,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의 관계에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이 있는지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린다는 세종학당의 역할이자 기능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제4장은 3장에서 논의된 베트남 전역의 세종학당의 특징을 기반으로 유형별·지역별로 총 4곳의 세종학당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다시 요약한 후 향후 베트남 내 세종학당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함의를 정리하면서 나가고자 한다.

제2장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실태 연구방법

이 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 논의할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특징과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분석틀과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연구 방법

본고에서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특징을 분석한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이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고 분석하였는데, 이 자료들은 각종 학술논문, 학위논문 종합 사이트에서 “세종학당”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찾았다. 선행연구 자료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했던 자료는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이다. 이는 홍보자료에 해당된 연2회 발행된 소식지와 월간 소식지, 언론보도 자료, 연구개발 자료, 포럼 및 워크숍자료, 교육·연수자료, 연차보고서 등이다. 세종학당재단의 공개자료 외에는 두 번째로 많이 본 자료로 국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및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하거나 공개한 자료도 참고하였다. 세 번째로 베트남 내 세종학당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세종학당들의 웹사이트와 주요 SNS인 페이스북을 참고하여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였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관련 자료는 따로 종합되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연구자가 웹사이트와 SNS 게시물, 사진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자체 정리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수단으로 각종 온라인 언론보도에서 세종학당 관련 정보를 찾았고 분석하였다. 세종학당 관련 공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학당재단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의 자료 및 온라인 보도 등도 참고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그뿐 아니라 세종학당재단 자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같은 자료에서 운영 결과를 성과 위주로 발표하기 때문에, 세종

학당재단의 모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또한 부정적인 특징도 보도해서 비교적 다른 시각을 보여준 기사들, 선행 연구들도 검토함으로써 다방면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에서 말한 자료들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뉜다. 1차 자료는 세종학당재단과 유관기관들의 공개자료, 선행연구 자료, 언론보도 자료들이고, 2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정리한 후 분석을 진행한 자료들을 말한다. 2차 자료의 예시로 세종학당들의 SNS에 세종학당의 설립연도, 수강생 수, 운영 중인 프로그램 등 기본 정보가 집중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가 세종학당의 거점 역할을 해왔던 문화원 세종학당의 SNS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였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해당 세종학당들의 SNS 게시글을 통해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분석법 외에도 통계 방법과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에서 말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강생 수나 교원 수, 프로그램 수 등 관련 수치는 매학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모집인원 등을 통해 통계하였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통계하면서 세종학당재단의 보고서나 자료들에서 나타난 숫자와 대조함으로써 최대한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려고 하였다. 비교 방법은 베트남 내 세종학당들을 일정한 지표들로 비교할 때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문화원 세종학당과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을 비교할 때 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거점의 역할을 오래 해온 문화원 세종학당과 설립된 지 3년에 불과한 거점 세종학당 간에 역할 인수 과정이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에서 이러한 역할 전환 현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어떤 특징을 띠는지에 따라 후속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른 예로 하이퐁 세종학당과 꾸이년 세종학당의 성공적 운영의 요인을 비교한 바를 들 수 있다. 하이퐁 세종학당의 경우 지역 내 한국기업이나 단체들의 지속적 지원과 활발한 교류가 성공 요인이었다면, 꾸이년 세종학당은 오래 전부터 자매관계를 맺은 국내 용산구와 친밀한 협력관계 덕분에 성공적인 운

영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러한 비교 방법을 통해 다른 유형의 세종학당들은 운영방식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각 세종학당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적이고 어떤 문제 때문에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역 내 세종학당 추가 설치 시 참고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다음은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실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도 논의했듯이, 현재 베트남 세종학당뿐만 아니라 전세계 세종학당을 다루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 세종학당을 중국의 중국어 교육기관인 공자학원과 비교하는 연구, 공공외교 또는 소프트파워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을 다루는 연구, 교육과정의 적합성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고, 지역별 세종학당을 다루는 연구는 없지 않지만 소수만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세종학당 관련 주제를 접근한 선행 연구자들은 대부분 교육학 연구자, 전문가들이거나 세종학당 사업 관련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므로, 이들의 세종학당 연구도 대부분 교육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시각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고,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세종학당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지고 세종학당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다양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세종학당 관련 연구들은 한국어 교육을 많이 논의하는데, 세종학당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도 보급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세종학당의 해당 역할을 다루는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문화 관련 세종학당 역할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나와야 세종학당 관련 관계자들이 향후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데 한국문화 관련 요소를 보다 많이 고려하고 전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처럼 연구주제의 한계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은 지역적 편중성도 지니고 있다. 지역 세종학당을 다루는 연구 중에는 한 나라의 한 학당을

다루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한 나라 전체의 세종학당을 논의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 세종학당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 국가 내 지역별 세종학당 관련 연구가 다른 나라의 관련 연구보다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세종학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아직 없다. 한 나라 전체의 세종학당을 다루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2개소 이상의 세종학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야 서로 비교해서 어느 학당이 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학당이 문제가 있는지, 혹은 전국 세종학당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 검토에서 언급했던 Tran Thi Huong, 이윤진(2017)의 논문의 경우 베트남 세종학당의 성공적인 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사례만 보면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특징을 말하기 어렵다. 한 국가 전체의 세종학당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세종학당재단에서 앞으로 해당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포함한 더 큰 권역에서 학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은 다시 말하지만, 2022년 들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세종학당이 설치된 나라가 되었고, 양적뿐만 아니라 활발하고 긍정적인 운영 모습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관찰된 사례이다. 따라서 베트남 전역 세종학당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향후 베트남과 같이 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학당이 많은 국가에서의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재단에서 어떻게 이러한 국가의 세종학당의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 발전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지, 일정한 발전 수준에 이른 학당들을 어떻게 내실화해 나갈 것인지 등등 베트남을 참고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세종학당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학당 운영의 긍정적 특징과 부정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특징은 성과, 부정적인 특징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학당 관련 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대다수가 주로 성과를 통계하고, 베트남 세종학당도 이 보고서들에서 소개되었을 때마다 어떤 성과의 한 사례로 소개된 적이 많았다. 문제점이 언급되더라도

어느 지역의 어느 세종학당의 문제점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떤 현상을 논의할 때 양면을 봐야 하는 것처럼, 학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때 좋은 점과 한계점을 같이 분석해야 전면적인 이해가 되고,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한계점도 짚고 넘어가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징 분석한 다음에 사례 분석을 진행하는데, 전역 세종학당의 특징만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지 않으면 전역의 특징이 구체적인 사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연구 사례로 선정된 지역 상황에 변형되지 않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 분석을 진행한 또 다른 이유는 세종학당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운영방식과 효과, 문제점 등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유형과 지역의 세종학당을 분석하면 각 지역과 각 유형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포함한 베트남 전역에 학당을 추가 지정할 때 어떤 지역에 어떤 유형의 학당을 설치하면 효과적인지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사례 분석 대상으로 베트남의 3지역인 북부, 중부와 남부의 각각 세종학당 하나를 선정하였고, 전국 세종학당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온 세종학당 하나를 선정하였다. 각 지역의 세종학당을 선정할 때에는 아무 학당이나 가장 성공적인 학당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세종학당과 차별점이 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학당을 골랐다. 만약 북부지역의 대표 사례와 중부지역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는데 학당 유형이 비슷하고 성공 요인도 크게 다르지 않은 두 사례를 고르면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유형이 비슷한데 어떤 차이점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효과가 서로 다르다면 그것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세종학당은 유형과 지역이 다른 세종학당 3곳 외에 북부지역 대표인 한 학당과 지역이 같지만 유형이 다른, 남부지역 대표인 학당과 지역이 다르지만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제4의 사례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각각 특징이 다른 학당들을 따로 분석하기도 하고, 서로 엮이는 관계에서도 분

석을 하면서 세종학당 운영실태의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세밀하고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본고에서 베트남 세종학당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특징으로는 베트남 내 세종학당은 세계적으로 학당 수가 가장 많고 최근 거점 세종학당이 합류하여 기존 모든 유형의 학당이 있으므로 양적 확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질적 발전도 이루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 성과는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지역의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수준 높은 학습자를 위한 고급 과정에 대한 수요가 생겼는데 해당 과정이 개발 중이거나 운영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부정적 특징으로 지원금 정산 문제, 웹사이트 운영 문제, 세종학당의 한국문화 보급 역할 관련 문제 등이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운영기관 간의 역할분담 문제, 어떤 유형의 세종학당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꾸이년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면서 협업형 세종학당이 효과적인 유형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문화원 세종학당과 거점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면서 해당 2곳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운영실태 특징의 분석 결과는 향후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운영을 개선하는 데 의미하는 바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모든 기본 교육과정과 학당 유형이 운영되고 있다는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특징을 이해하면 베트남처럼 학당 유형과 교육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국가에서의 세종학당 운영 방안을 모색할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와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대책을 미

리 준비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앞으로 베트남에서 세종학당 운영 계획을 수립할 시, 이미 전국에 학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을 알면 추가 지정하면 수요 있는 지역 외에 어떠한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지, 현재 운영 중인 학당들이 보다 발전해 나가기 위해 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다양화 등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아닌지 등등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다양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사례 분석의 결과도 세종학당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사례를 보면 뚜렷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꾸이년 세종학당이 성공적인 협업형 세종학당이라는 결과를 전제로 향후 학당을 추가 지정할 때 협업형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유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3절 분석틀

위와 같이 분석 내용과 대상을 설계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이 사용했던 틀을 참고하였고, 이와 더불어 세종학당 운영기관 워크숍 자료, 국회토론회 자료 등 세종학당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틀을 만들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표로 정리된다.

[표 3] 분석틀

분석 내용	분석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Tran Thi Huong·이윤진(2017), 우도혁(2021) 등 - 세종학당재단 자료: 2021년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 “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 - KF: 2021 지구촌 한류현황 보고서 - KOFICE: 2021 한류백서,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 - 세종학당 역할 관련 정의
지역 내 세종학당의 특징: 긍정적인 특징, 부정적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김재욱(2013), Tran Thi Huong·이윤진(2017), 이해영(2008), 김형섭(2016) 등 - 세종학당재단 자료: 2021년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 “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
사례 분석: 유형별 분류, 지역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김재욱(2013), Tran Thi Huong·이윤진(2017) - 세종학당재단 자료: “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 연차보고서, 워크숍 자료 - 세종학당의 특징 (유형 다양성)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김재욱(2013), Tran Thi Huong·이윤진(2017), 전영근(2008), 류재원 (2021), 김형섭(2016) 등 - 세종학당재단 자료: 2021년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 “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

먼저,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세종학당 관련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방법이다. 한국 문화 또는 한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진행한 기존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는데, 세종학당의 기본 역할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학당을 연구할 때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의 현재 상황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재외공관의 한류 확산 발전계획에서도 한국어 확산 계획이 반영되어 한류와 한국어 교육의 밀접한 관계를 같이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의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참고하였고, 현황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자료로 KF, KOFICE, KOTRA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렇듯 기존 자료에서 다루었던 한국어와 한국문화 현황을 살펴본 후 세종학당의 특징과 발전 방안을 논의할 때 실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발전 상황과 추세 속에 어떤 점을 참고하고 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 현재 세종학당의 교육 프로그램이 그러한 추세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지역 내 세종학당의 특징은 운영 실태에 의해 분석하여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으로 나누었다. 선행연구들과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들은 대부분 해당 내용을 분석할 때 성과와 문제점, 즉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을 같이 논의하였다. 대부분 재단의 연차보고서에서 부정적인 특징이 종합되지 않았는데, 토론회나 워크숍, 또한 선행연구에서 세종학당의 현존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에서 틀을 참고할 수 있었고 어떤 지표를 세워서 분석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었다. 연차보고서에서 나올 만한 수치 관련 긍정적 특징,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지원금 부족 및 정산 문제, 교육과정 적합성 문제 등 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세종학당 발전방향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을 냈던 내용들도 참고하였고, 세종학당재단 관계자가 직접 밝힌 문제점도 참고하여 수많은 세종학당의 특징 중 긍정적인 특징으로, 부정적인 특징으로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특징과 긍정적인 특징을 정리한 후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할 때 어떤 특징을 계속 발휘해야 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어서 본 연구는 베트남 전 지역 세종학당의 전반적인 특징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베트남 세종학당을 다룬 몇편이 안 된 선행연구 가운데 김재욱(2013)이 베트남 내 세종학당들 중 몇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 바가 있어서 본고에서 그런 점을 참고한 부분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세종학당 운영 결과보고서에서도 연구자들이 지역별 나눠서 특징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장미경·최윤정(2021)도 세종학당 관련 연구 동향 분석에서 지역별 세종학당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한 바 있다. 이 외에는 유형이 다양하다는 세종학당의 특징만 봐도 지역별 학당 연구뿐만 아니라 유형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지역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북부·중부·남부 많은 지역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학당 수도 많고 유형도 다양한데, 이런 경우엔 1~2개소만 분석하면 전반적 실태 파악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3지역의 학당만 고르면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3지역이 엮인 학당인 문화원 세종학당이 제4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문화원 세종학당은 또한 거점 세종학당과의 역할 관련해서 상관이 있어서 이 두 학당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본고는 위에서 근거로 했던 모든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세종학당의 운영실태를 논의할 때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참고할 때 오랜 전의 연구에서 나왔던 방안이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적합하지 않지 않은지, 더 최근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은 베트남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등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걸러서 본고만의 제언을 수립해보았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서 많이 지적된 지원금, 운영기관 역할분담 관련 문제가 베트남 사례에도 발견되어서

본고에서 선행연구처럼 해당 문제점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종학당 운영 결과보고서에서 수요 위주 신규 학당 지정 문제, 고급과정에 대한 수요 문제를 제기했는데 베트남 사례에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그들을 개선 방안의 일부로 제기했다. 이 외에는 본 연구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만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베트남 지역만의 개선 방안이 아닌 베트남과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국가 또는 권역에도 해당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다.

제4절 가설

본 연구에서는 4개소의 세종학당에 대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세종학당의 지역적, 유형적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3가지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하이퐁 세종학당은 베트남 내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므로, 해당 세종학당은 수강생 중 결혼이민자가 많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 꾸이년 세종학당은 같은 중부지역의 다른 관광도시에 비해 한국 직항 비행기가 없고, 중부지역 유명 관광도시인 다낭시에 다낭외대의 세종학당이 있기 때문에 꾸이년 세종학당의 운영이 크게 성공적인 요인이 없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 거점 역할을 해온 문화원 세종학당과 설립한 지 3년에 불과한 거점 세종학당 간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설을 설정한다.

위와 같은 3가지의 가설은 각 학당의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해답을 찾을 예정이다.

제3장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일반적 특징

제1절 베트남 내 한국문화 및 한국어 교육 현황

베트남 내 한국문화 현황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화의 역사를 보려면 시간을 거슬러 1990년대 말로 돌아가야 한다. 1997년에 한국드라마가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소개되었다. 1998년에 <의가형제>라는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방영되면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 드라마가 상륙하고 인기를 끌었던 국가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베트남 진출은 드라마, 영화, 음악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패션,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어오던 한류 콘텐츠는 K-Pop,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K-Pop 팬층이 대부분 10~20대라면 드라마 시청자의 연령대는 훨씬 더 다양하다. 베트남 내 한류 초창기인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는 현대 드라마 “모델”, “가을동화”, “겨울연가”, “풀하우스”, 사극 드라마 “대장금”, “주몽”, 영화 “엽기적인 그녀”, “어린 신부”, 한류스타 동방신기, HOT, 비(Rain), 빅뱅, 소녀시대 등 이 열풍을 일으켰는가 하면, 2010년대 들어 그 위치에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아이돌 그룹 2NE1, 샤이니, 엑소(EXO) 등이 안착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한류 파워 인물 중 BTS와 블랙핑크가 앞장서고 있고, 2020년에는 “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2021년에는 “오징어게임”, “갯마을 차차차”,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이 현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K-Pop 팬 가운데 BTS팬이 53만여 명으로 가장 큰 규모의 동호회이다.

한류가 베트남에 최초 유입되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주로 텔레비전 방송이나 중국에서 밀수입된 CD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접하였으나, 2000년대의 인터넷 보급으로 그 경로가 SNS, Youtube, K-Pop 동호회 사

이트, 영화 사이트 등 인터넷으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 이후 OTT업체 넷플릭스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ICT 기업인 FPT에서도 ‘FPT플레이’ 라는 OTT를 출시해 한국 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전 세계 영상 콘텐츠를 현지에서 소개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베트남 내의 한류의 파워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스포츠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원래 현지에서 인기 스포츠 중 하나 이던 태권도에 힘입어 2017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내 K-스포츠의 영향이 커졌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큰 성공을 거둘 때마다 한-베 양국 언론을 통해 박항서 감독을 향한 칭송과 현지인의 호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한국 스포츠에 대한 현지인의 호감도 높아졌으며, 이후부터 박항서 감독을 뒤이어 한국 스포츠 감독들도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오고, 양국 축구의 선수 간 교류도 활발해졌다. 대면 스포츠뿐만 아니라 한국 e-스포츠 스타 페이커(Faker)를 포함한 한국의 e-스포츠도 베트남 내 상당한 인기가 있다.

현지에서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OTT의 발전과 함께 지금 현지인이 즐겨 찾는 한류 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음악에 그치지 않고 예능, 뷰티, 패션, 웹툰 등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거의 모든 분야의 콘텐츠로 폭이 넓어졌다.

주로 TV방송에서 소개된 드라마와 달리, 한국 영화는 현지인에게 알려진 경로가 중국에서 밀수입된 CD였다가 영화관 가는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영화관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 한국기업 CJ CGV가 베트남 멀티플렉스인 Mega Star를 인수하여 베트남 내 멀티플렉스 1위 사업자가 되었다. CGV뿐만 아니라 롯데시네마도 현지 영화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베트남 전국 영화관 가운데 CGV와 롯데시네마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영화관을 찾는 현지인에게 한국영화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날은 다른 영상 콘텐츠와 같이 OTT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가능해져 어느 때보다 현지인이 한국영화를 쉽고 자기의 의

지대로 시간 제약 없이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영화 시장에서 높은 예매율과 인기를 기록했던 한국영화로 2016년 “부산행”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흔들었던 “기생충” 을 들 수 있다.

베트남 내 한국 대중문화의 보급률이 높은 편인데 비해 전통문화에 대한 전파가 보다 늦게 시작하였고, 대중문화보다 향유 계층이 소수에 해당한다. 2013년부터 베트남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보다 홍보하기 위해 한국 전통음악 공연 예술이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 미술이나 아직 현지에서 널리 홍보되지 않은 문화 콘텐츠들을 현지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베트남 내 한국문화 홍보기관인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한국문화가 가장 사랑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사실은 한류, 한국어 관련 통계자료들에서 베트남의 위치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과 베트남은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류가 세계 각국에서 열풍을 일으켜 온 과정에서 그 인기가 일부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베트남은 한류가 가장 먼저 상륙한 지역 중 하나일 뿐더러 안정적인 발전 방향을 보여주었다. 양국은 역사적, 문화적, 심지어 정서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이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갖기 매우 쉽다. 한류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잘 생기고 예쁜 아이들, 배우, 연예인들, 세련된 패션 등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인지 몰라도, 타국과 한국 간에 유사한 정서, 가치관이 없으면 그 인기를 오래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베트남에 맞아떨어져 현지인이 한국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류가 베트남인의 정신적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어 교육 현황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의 시작은 양국 첫 수교인 1955년이다. 그 당

시 한국 교포 중심으로 교민회가 설립되어 한글학교 개교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로 인해 한-베 관계가 17년간 단절되었다. 한국과 통일베트남 간의 외교관계가 공식 수립되기 전에는 민간 상사 주재원들이 호치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할 수 있는 베트남 현지인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고용하였는데, 이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 학습의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였다.¹²⁾ 1988년 서울올림픽 계기로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교가 수립되었고, 이후 양국 간에 많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비공식적인 한국어 교육도 확대되었다. 수교 1년 뒤인 1993년에는 하노이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방학부에 한국어학과가 최초로 설립되면서 베트남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2020년까지 33개 현지대학에서 한국어학과 및 교양강좌가 운영되었고, 17,700여명의 대학 재학생이 이 과정들을 수학하였다. 2018년 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최초로 개설, 2021년 초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기존 5개 제1외국어에 이어 한국어를 추가로 채택한 것은 베트남 내 한국어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켰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대학 입학시험에서 가장 높은 합격 점수의 학과 중 인기 많던 영문학과와 일본어학과가 선두에 섰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일본어학과 못지않거나 더 높은 합격점수를 요하는 학과는 한국(어)학과가 되었다. 그만큼 한국어 학습에 대한 현지인의 수요와 현지 내 한국어 교육의 영향력이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12) 조명숙(2001),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이중언어학 제19호, 이중언어학회, 80쪽.

[표 4] 2020년 베트남 33개 대학 한국어학과 현황

(출처: 2021 세계한국어한마당¹³⁾)

북부 (15)	하노이국립 외대 (1994)	하노이국립 인문사회과 학대 (1995)	베트남사회 과학아카데 미 (1998)	하노이대 (2002)	베일외국어 기술전문대 (2007)
	베트남국립 경제대 (2010)	박하기술칼 리지 (2013)	하노이과학 기술대 (2014)	타이응우옌 대 (2016)	탕롱대 (2016)
	하노이산업 대 (2018)	하롱대 (2019)	베트남외교 아카데미 (2021)	언론커뮤티 케이션대	하노이폴리 테크칼리지
중부 (3)	다낭외대 (2007)	후에외대 (2008)	동아대 (2020)		
남부 (15)	호치민국립 인문사회과 학대 (1994)	호치민외국 어정보기술 대 (1995)	홍방국제대 (1999)	락흥대 (2003)	달랏대 (2004)
	반히엔대 (2007)	사이공문화 예술관광대 (2008)	응우옌땃탄 대 (2011)	투득기술칼 리지 (2013)	바리어붕따 우대 (2016)
	컨터대 (2015)	호치민기술 대 (2016)	호치민사범 대 (2016)	타이빙즈영 대 (2017)	FPT대-컨 터캠퍼스 (2019)

한-베 관계가 정상화된 1992년부터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 수요는 처음에는 주재원들이 많이 모이는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를 포함한 남부지역에서 시작하여 수도인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어 인력의 수요가 많은 이 지역들에서 한국(어)학과가 가장 먼저 개설되었는데, 초기에는 하노이와 호치민 같은 대도시들에 있는 국립대 3개교(하노이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호치민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하노이국립대 외국어대학)와 사립대 1개교(호치민 외

13) 2021 세계한국어한마당 발표09 발표자가 이 표를 만들기 위해 KF 통계센터 해외대학 한국학 현황을 참고하였다.

국어정보대)에서 한국어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그 다음 시기인 2000년대 중반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부 도시 다낭의 다낭대학교와 달랏대학교에도 한국어학 전공이 생기면서 베트남 북·중·남부에 한국어학 전공이 골고루 개설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대도시나 각 지역의 중점 도시가 아닌 베트남 전국으로 한국어학 전공이 있는 대학교가 많아졌다. 또한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2~3년 과정의 전문대도 한국어를 교육과정에 도입하였다. 2018년 하노이국립대 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학) 대학원이 최초 개설된 바에 이어 얼마 전인 2022년 1월에 호치민 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에서 한국학 석사 과정을 개설하였다.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간의 베트남 중등학교 한국어 시범 교육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1년 들어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한국어를 초-중-고 제1외국어 교육과정 중 선택과목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어 교육은 베트남 내 정규 교육과정 전체(초-중-고-대)에 진입하였다. 그렇지만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시행된 지 아직 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발전해온 지난 세월 동안 한국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최근의 초-중-고등학교에서까지 많은 지원을 하였다. 민간 영역 중 비영리기관인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교원 연수, 재외동포 대상 단기 연수와 모국 수학 장학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베트남 대학교에 대한 지원으로는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속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KF의 경우 한국학과 관련된 지원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객원 교수 파견, 현지 대학교 연합 한글날 축제 지원, 한국 문헌을 제공하는 코리아 코너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다. KOICA는 현지에서 봉사단원 파견, 현장 지원 사업, 활동 물품 지원 사업 등으로 이름이 알려진 기관이다. 현지에서 개최된 한국어 관련 행사에서 앞의 두 기관의 로고를 찾기 어렵지 않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지원을 기울이는 한편, 현지 정부의 외국어 교육 전략과 현지인의 외국어 학습 추세 변화도 오늘날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일조하였다. 자국민의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한 베트남 정부는 ‘2020 외국어 교육전략’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해 교육 설비, 기반 시설, 강사 양성 관련 사항 외에도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2025 외국어 교육 전략’에서는 기존의 학교 중심 외국어 교육에서 벗어나 가족, 사회, 사설 학원, 온라인으로까지 평생교육으로 방향이 확대되었다. 베트남 국민은 국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면도 있지만, 국외 기업의 유입과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방과 후 외국어 학원을 찾거나 독학하는 등 평생교육으로서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다.

현지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관련해서, 2020년 세종학당의 학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의 한국어 학습 목적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 유학, 한국기업 취업 등으로 다양한데, 한국기업 취업 또는 근무가 학습 목적 전체 중 30% 이상 차지해 세계 평균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학)과 소지 대학, 세종학당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많은 베트남 일반인이 사설 학원에서 또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 중 한국기업 혹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직장을 포함한 현지어만 사용하는 직장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있다. 2021년 베트남 내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공기업에서 고급 공무원이 받는 월급이 천만 동(약 50만 원) 안팎¹⁴⁾인데, 한국기업 취업 성공한 한국어 가능자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적어도 이보다 비슷하거나 2배 높을 수 있다.

베트남 내 정규 교육 과정 외에도 비정규 교육 과정인 사설 학원들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이 학원들은 한국 기관과 연계하여 개설되거나 베트남 사람이 직접 운영한다. 평생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영역에는 대표적인 예로 세종학당을 들 수 있다.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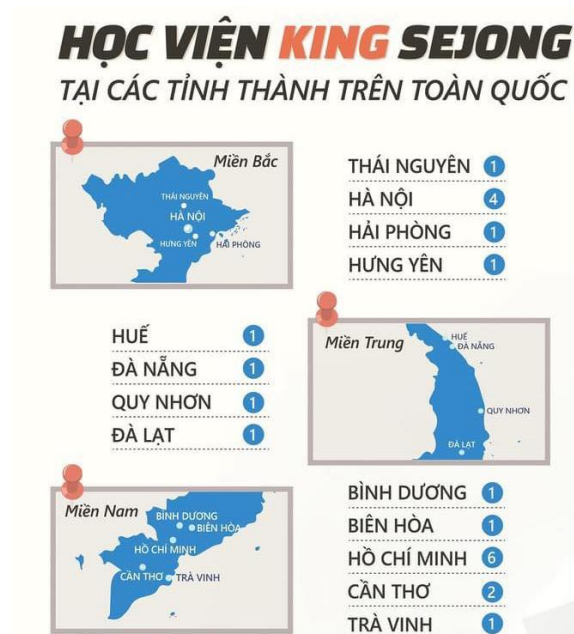
14) 2022년 베트남 공무원 급여표 참고.

종학당은 대학만큼 학습자가 많을 수 없지만, 한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 소속으로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더하여 사설학원이나 어학원에서 한국어만 배울 수 있으나 세종학당에서 한국문화 체험도 할 수 있고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경우 유학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인이 찾는 한국어 교육기관 중 위신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쯤에서 나오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세종학당과 사설 학원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인은 세종학당을 다니는 한국(어)학과 전공생과 기타 사설 한국어학원을 다니는 극소수의 한국어 전공생을 제외한다. 왜냐하면 한국어 전공생 가운데 자기의 학교에 설치된 세종학당이 있어 방과 후 능력을 다지기 위해 세종학당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비슷한 상황이 아니거나 자체 의지로 사설 학원을 다니는 한국어 전공생들도 비교적 있다. 이들을 제외한 한국어 전공생이 아닌 일반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을 때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는 물론 자기의 거주지와 수업 참여 가능한 시간, 수업료 등이 우선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지만, 각자의 학습 스타일과 교육기관에 대한 기대에 따라 최종 선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위신 있는 한국정부의 산하기관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세종학당을 찾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설 학원들의 창립자, 강사 혹은 학습 시설 등을 본다. 현재 베트남 내 사설 한국어학원이 수 천 군데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인기 많은 학원들의 공통점은 강사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어)학과 소지 대학에서 수업하는 현지 교원인 것이다. 세종학당은 위신이 높은 교육기관이지만 홍보 경로가 대사관, 문화원, 교육원 등 유관기관들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로들 중 한 개라도 접촉할 일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세종학당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쉽지 않다. 사설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학원 운영의 성패가 강사의 능력과 홍보가 잘 되는지에 달려있다. 사

설 학원 강사 중에도 원어민이 가장 선호되고, 현지인인 경우 물론 대학교 강사인 사람도 있지만 한국(어)학과 고학년 전공생을 강사로 사용하는 곳이 많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세종학당의 국외에 설립하는 목적은 단순히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등이고 현지 사설 학원과 경쟁하여 학습자를 더 많이 유치한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한국어 교육이라는 같은 흐름에서 이 사설 학원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는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제2절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현황



[사진 2] 2021년 6월 기준 베트남 내 세종학당 분포
(출처: 하이퐁 세종학당 페이스북)

베트남 지역 내 첫 세종학당은 2010년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에 독립형으로 시작한 이래 2021년 6월 기준 22개소에 이르렀다.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세종학당의 운영 유형은 크게 일반형과 협업형이 있

고, 일반형은 독립형과 연계형으로 세분화된다. 독립형은 세종학당을 운영하려는 국외 현지 운영기관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교부 받아 직접 운영 및 정산하는 유형이다. 연계형은 국내기관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문화원 등)이 국외 현지 운영기관과 세종학당 운영 관련 업무 협약 후 지정 신청하고, 국외 현지 운영기관과 국내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세종학당을 운영하되 국내 운영기관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아 관리 및 정산하는 유형이다. 협업형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고 운영하는 유형이다.

2019년 세종학당재단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학당 운영 유형으로 (1) 일반 세종학당, (2) 협업형 세종학당, (3) 거점 세종학당, (4) 문화원 세종학당, (5) 교육원 세종학당 등 총 5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유형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2022년 4월 기준 베트남 세종학당 현황 (연구자 자체 정리)

순번	설립연도	학당명	지역	운영 기관	유형
1	2010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북부 하노이시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독립형 (문화원)
2	2011	하노이1 세종학당	북부 하노이시	하노이인문사회과학 대, 부산외대	일반형 (연계형)
3	2011	하노이2 세종학당	북부 하노이시	하노이국립외대	일반형 (독립형)
4	2013	타이응우옌 세종학당	북부 타이응우옌시	두선 베트남	협업형
5	2013	후에 세종학당	중부 후에시	후에대, (사)BBB코리아)	일반형 (연계형)
6	2014	호치민2 세종학당	남부 호치민시	호치민 국립사범대, 서울대	일반형 (연계형)
7	2015	껀터(1) 세종학당	남부 껀터시	껀터 국립대,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일반형 (연계형)
8	2015	호치민3 세종학당	남부 호치민시	호치민산업대, 경운대	일반형 (연계형)
9	2016	하노이3 세종학당	북부 하노이시	더샘커뮤니케이션, KAS홀딩스(전신: 석우종합건설)	일반형 (연계형)
10	2016	빈즈엉 세종학당	남부 빈즈엉성	빈즈엉대, 조선대	일반형 (연계형)
11	2016	꾸이년 세종학당	중부 꾸이년시	용산구청	협업형
12	2018	다낭 세종학당	중부 다낭시	다낭외대	일반형 (독립형)
13	2018	하이퐁 세종학당	북부 하이퐁시	하이퐁대, 부산외대	일반형 (연계형)

순 번	설립 연도	학당명	지역	운영 기관	유형
14	2019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남부 호치민시	세종학당재단	거점
15	2019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남부 호치민시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독립형 (교육원)
16	2021	호치민5 세종학당	남부 호치민시	호치민시산업대, 원광보건대	일반형 (연계형)
17	2021	홍옌 세종학당	북부 홍옌시	홍옌커뮤니티컬리지, 경성대	일반형 (연계형)
18	2021	컨터2 세종학당	남부 컨터시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협업형
19	2021	비엔호아 세종학당	남부 비엔호아시	락홍대	일반형 (독립형)
20	2021	짜빈 세종학당	남부 짜빈성	짜빈대, 서정대	일반형 (연계형)
21	2021	달랏 세종학당	남부 달랏시	달랏대, 진주보건대	일반형 (연계형)

2022년 4월 현재 기준 베트남 내 세종학당은 총 21개소이다. 전년도에 15개소였던 베트남 세종학당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나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뿐만 아니라 세종학당이 베트남에서 운영되어 왔던 과정을 봐도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8월까지만 해도 중국 세종학당은 28개소, 베트남 세종학당은 15개소로 집계되었다. 2022년 4월 초 확인 결과 2021년 6월 기준으로 베트남 내 중국 세종학당이 22대22이었으나, 2022년 4월말 재확인 시 이 숫자가 21대20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 내 세종학당이 일부 폐업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¹⁵⁾ 베트남에서 폐업된 세종학당 1개소는 2020년에 지정된 호치민4 세종학당(호치민

교통대학교-동국대학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세종학당이 설치되는 나라가 되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은 대부분 대학교와의 연계형으로 개설되었다. 호치민시와 수도인 하노이에 가장 많이 있으나 갈수록 이와 같은 대도시들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있다. 또한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 독립형으로 설립된 세종학당 3개소가 있으며, 2019년에 베트남 내 세종학당들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 세종학당재단이 호치민시에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을 설립하였다. 거점 세종학당의 탄생은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발전 가운데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이 크고 설립 이후 이루어졌던 실적들이 성공적이었다.

2021년 세종학당재단 연차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0년 이후 베트남 전국에 새로 설립된 세종학당은 호치민4, 호치민5, 흥옌, 켄터2, 비엔호아, 짜빈, 달랏 세종학당 총 7곳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켄터2, 비엔호아, 짜빈, 달랏, 흥옌 세종학당 5곳은 2021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해 호치민4 세종학당이 폐업된 것으로 학당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었다. 달랏 세종학당의 경우 재단의 2021년 7월 <새소식> 소식지의 일부인 <2021년 신규 지정 세종학당> 표에 따르면 달랏대와 진주보건대 간의 연계형으로 새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달랏 세종학당”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한 결과 해당 세종학당의 홈페이지에서 2012년에 달랏대-한국외대 간의 연계형으로 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세종학당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이트 내용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세종학당들은 설립 초기의 운영기관이 바뀌지 않으나, 몇 개의 학당에서 운영기관 변경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켄터1 세종학당

15) 강성철. “ ‘신종 코로나 여파’ ...동티모르 봉사중단-중세종학당 휴교.” 연합뉴스, 2020.02.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6156300371>

은 원래 건너국립대학교와 원광대학교의 연계형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이 원광대학교의 역할을 대체하였다. 타이응우옌 세종학당의 경우, 원래 타이응우옌대학교와 계명대학교의 연계형 세종학당이었으나, 2021년 2월부터 두선 베트남이 재단과 함께 협업해 해당 세종학당의 운영기관이 되었다.

일반형 세종학당 가운데 국내대학교·현지대학교 연계형 세종학당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현지 대학교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연계하였던 국내 기관이 바뀔므로 인해 현지대학교·국내기업 연계형이 되거나 국내 기업, 현지 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생겨났다. 하노이2 세종학당(하노이국립외대), 후에 세종학당(후에대 - BBB코리아)이 이에 해당된 예이다.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수가 많은 세종학당은 협업형 세종학당 3곳이다. 그 3곳은 KOCUN이 운영하는 건너2 세종학당, 두선베트남이 운영하는 타이응우옌 세종학당, 용산구가 운영하는 꾸이년 세종학당이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경우 1996년부터 베트남 꾸이년시와 우호 교류를 해온 용산구에 의해 2016년에 협업형으로 꾸이년 세종학당을 열었다. 이처럼 협업형 세종학당이 생긴 것은 해외 도시들과 교류를 이어오면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던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강의실을 마련할 수 있고 한국어 공부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모았는데 이들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몰라 해매던 참에 세종학당재단을 만났다. 그 결과 재단과 협업을 통해 교류 도시의 시민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협업형 세종학당은 찾아오는 학습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느새 양 도시 간, 양국 간 소통에 중심적인 역할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세종학당은 지역사회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통해 맞춤형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 베트남, 몽골, 필리핀 지역

저소득층과 동남아 한국계 혼혈 아동들 중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19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손잡아 베트남 호치민3 세종학당에 웹툰창작체험관을 조성하고 운영한 사례가 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현지 만화기업에 8명이 인턴으로 취업하였고, 2019년에는 우수한 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유관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협업의 성과를 나타냈다. 다른 예로 재단은 하이퐁 지역 세종학당과 유관하거나 협업하고자 하는 5개 기관, 기업과 협업하여 베트남 하이퐁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채용 근로자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실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절 긍정적 특징 및 부정적 특징

베트남은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한류와 한국어 교육이 긴 역사를 지닌 국가인 만큼 베트남 내 세종학당도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이 관찰된다. 이절에서는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봐도 현지 내 실태만 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일본을 이어 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종학당이 위치한 나라에서 작년엔 두 번째로 승격했고, 올해 들어 21개소로 세종학당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양적 확대와 함께 재단의 각종 소식지와 보고서에서 이름이 올라온 실적을 보면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양적 발전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10개소가 안 된 협업형 세종학당 가운데 3개를 차지한 베트남 세종학당은 2019년 거점 세종학당, 2021년 내 신규 지정된 학당 6개가 추가됨으로써 역량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도시, 한국기업이 많은 도시, 관광도시 등 경쟁력 있는 구역들에서 벗어나 신흥·잠재 지역으로 뻗어 나가려는 현지 세종학당의 움직임이 관찰되었고, 앞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사각지대에서 세종학

당의 출현이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질적 확장도 따라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질적인 확장을 고려할 때 흔히 떠오르는 수요 문제, 사각지대 접근 문제 외에도 지역의 잠재력과 지역 특성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 남부 켄터시와 북부 하이퐁시는 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이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이 과정에는 세종학당의 기여가 높지 평가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들에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타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서 이들을 위한 수업 비중을 늘리고 학습자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에 켄터 지역에 켄터2 세종학당이 신규 지정되었는데, 켄터 지역의 두 번째 세종학당이 된 이 세종학당은 기존 결혼이민자가 많이 찾는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운영 하에 있으므로, 결혼이민 학습자 지원을 위한 재단의 노력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학당은 이제 베트남에서 대학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어 위신 있는 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어 사설학원이 많은 나라인데 세종학당과 이 사설학원들의 차별성을 살펴볼 때 공공기관의 위상인 것을 제외하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설학원은 자체 홍보하거나 광고로 이름을 알려야 하는가 하면 세종학당은 국내 재외공관, 기업, 현지 기관 등과 맺은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더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더러 한국 연수, 유학 기회 등도 제공함으로써 일반 사설학원들과 현저한 차이를 두었다. 하지만 한국(어)학과 소지 대학이나 사설학원과 비교하지 않고 세종학당 자체의 홍보효과만 보면, 규모가 큰 일부 세종학당을 제외하면 SNS상 홍보활동,

홈페이지 활동이 소극적인 학당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어떤 세종학당은 웹사이트 홈페이지와 SNS 페이지를 같이 운영하는데, 어떤 세종학당은 둘 중 하나만 운영하거나 하나를 제대로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은 현지인이 SNS 가운데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인 부분도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홍보 수단 통합 또는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한계점은 고급 교육과정 미비이다. 베트남 내 세종학당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세종학당 수를 보유하고 이에 상당한 발전 과정과 성과를 지닌 세종학당으로서 학습자의 수요가 다양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 세계 세종학당 상황을 살펴봤을 때 고급 교육과정이 아직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강생 수가 적거나 학습자 유지가 안정적이지 않거나 새로 지정된 세종학당들을 제외하면 오래된 세종학당들에서는 고급과정에 대한 수요가 제시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베트남 지역에서도 오래 전부터 학습자의 수요가 있어 고급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있는 세종학당들의 대응 방법은 국내 대학교의 고급과정과 비슷한 수준의 교재를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현지 수강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세종학당 브랜드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초·중급 과정을 마친 수강생이 완전히 다른 체계의 교재를 접하는 데에도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급과정 개설이 이러한 지역에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중급2 과정과 연계된 고급과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협력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도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에서 발견된 문제점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베트남 내 세종학당 운영 현황을 처음 소개

했을 때 달랠 세종학당의 운영기관 변동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운영기관 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외에도 현지어 학당명과 국문, 영문 명칭과 통일하지 않다는 문제, 프로그램 대상 겹치는 문제, 데이터 구축 및 자료 공개 관련 문제점들이 있다. 학당의 명칭인 경우, 국문과 영문 명칭이 통일화되었으나, 베트남어 명칭은 현지 세종학당들 가운데 다르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세종학당의 명칭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사실 한국어 학원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통일된 명칭에 대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의 대상 겹치는 문제는 운영기관의 인력과 세종학당의 인력이 겹치거나 지원 대상이 겹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가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경우 중에 학교 강사가 세종학당의 교원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학생이 방과 후 세종학당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 문화원 세종학당 같은 일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과)학 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세종학당들도 있다. 이런 현상은 학교와 세종학당의 개별 행사에 지원 대상이 두 번이나 참여하거나 이익을 받는 등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문제점이 된다.

자료 공개 관련해서는 현지 세종학당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가 따로 공개되지 않아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연구자들도 같은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많았다.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자료들은 전 세계의 상황을 종합하는 자료로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각 세종학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재단과 협력기관의 자료를 종합하여 찾아봐도 못 찾거나 산만한 정보만 획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4장 베트남 내 세종학당 운영 사례 분석

이 절에서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 가운데 연구자가 선정한 4곳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하기 위해 4곳의 공통적 분석 지표들을 설정하였는데, 각 세종학당을 분석할 때 해당 세종학당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특징, 학당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교원, 교재, 수강생 현황, 성과나 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선정된 세종학당은 하이퐁 세종학당, 꾸이년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거점 세종학당이다. 먼저 아래와 같이 [표 5]에서 세종학당 4곳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한 후 선정 기준을 밝힐 것이다.

[표6] 베트남 내 세종학당 4개소 기본 정보 (연구자 정리)

	하이퐁 세종학당	꾸이년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거점 세종학당
설립 연도	2018년	2016년	2010년	2019년
유형	일반형 (연계형)	협업형 (지자체)	문화원 (독립형)	거점
운영 기관	하이퐁대, 부산외대	용산구청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재단
인력 정보	파견교원 ?명 현지교원 ?명 운영요원 ?명	학당장 파견교원 3명	파견교원 2명 현지교원 2명 운영요원 1명	학당장 파견교원?명 현지교원?명 운영요원?명
수강 생 수	2019년 193명 2020년 428명 (연 3기)	400여 명 (연 2기)	600여 명 (연 2기)	1000여 명 (연 4기)

	하이퐁 세종학당	꾸이년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거점 세종학당
수강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성 초급1 8주 주5회 24회 60시간: 1,800,000동 - 일반 초급1 8주 주3회 24회 72시간: 2,100,000동 - 결혼이민자 12주 주5회: 3,000,000동 - 교재비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반 운영비: 25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 교재 무료 제공 	<p>(2022년 2기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1~2 주3회 (회당 1시간30분) / 주2회 (회당 2시간30분): 1,800,000동 - 비즈니스 주3회 (회당 1시간30분): 1,500,000동 - 중급 회화 주2회 (회당 2시간30분): 1,500,000동 - 수강료에 교재비 포함.

	하이퐁 세종학당	꾸이년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거점 세종학당
교육 대상	일반인, 고교 생, LG디스플 레이 및 협력 사 직원, 결혼 이민자 등	지역 고교생, 공 무원 등 일반인	하노이 지역 일 반인, 대학생, 중 학생, 고등학생 등 15세 이상 현 지인 (한국어학 전공자, 한국 국 적자 제외)	현지 고교생, 한국문화 애호 가, 일반인 등
교육 과정	연 3기 - 속성 초급1 A, B 주5일. - 일반 초급1 A, B 주3일. - 일반 초급 2A, B 주3일. - 결혼이민자 대상 과정 주5일 (초급1).	연 2기 학기당 16주 - 초급1~2 - 중급1 - 회화 2A - K-Wave	연 2~3기 - 기본 과정: 초급1&2, 중급1&2 15주 주1~2회 60시간 내외, 16개 반. 연 2학기 1학기: 4~7월, 2학기: 9~12월. - 특별 과정: 세종한국어 회화, 여행, 비즈니스(중급1), 문화수업, 토픽 3주 6~12시간.	연 4기 (학기당 9~10주). 일부 과정이 3~4주 단기로 진행. - 초급1~2 - 중급1~2 - 토픽(3,4급) - 회화(중급1) - 비즈니스 - 여행 - 문화 - 결혼이민자 대상 수업
	교재: 세종한국어 1~3	교재: 세종한국어 1~5	교재: 세종한국어1~8, 회화, 자체제작 교재 등	교재: 세종한국어1~8, 회화, 자체제작 교재 등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다 미시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에는 지역 내 세종학당 4개소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4개소를 선정할 기준은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각 지역에 있는 학당 1개소씩 선정하고, 전국에서 성공적인 운영 사례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선정된 세종학당 4곳은 전국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의 세종학당, 북부지역 내 하이퐁 세종학당, 중부지역 내 꾸이년 세종학당, 남부지역 내 거점 세종학당이다. 이 4곳은 북부·중부·남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지역 내 세종학당 가운데 운영기간, 유형, 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 또는 협업 기관과의 관계 등 어느 한 측면이 다른 학당과 차별화되거나 뛰어난 것인 이유로 선택되었다. 예를 들어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의 경우 베트남에서 최초로 설립된 세종학당이기도 하고 몇 개 안 되는 독립형 세종학당 가운데 재외공관이 운영하는 세종학당이다. 또한 Tran Thi Huong·이윤진 (2017)에서 베트남 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 세종학당 가운데 성공적인 사례 하나인 하노이2 세종학당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역 측면에서 북부지역 대표로 하이퐁 세종학당, 성공적인 사례의 측면에서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을 선정하여 차별성을 두었다.

제1절 하이퐁 세종학당

[표 7] 하이퐁 세종학당 기본 정보 (연구자 정리)

설립연도	2018년
유형	일반형 (연계형)
운영기관	하이퐁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력 정보	- 교원 ?명: 파견교원 ?명, 현지교원 ?명 - 운영요원 ?명
수강생 수	2019년: 193명, 2020년: 428명 (121.76% 증가)
교육 대상	일반인, 고교생,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직원, 결혼 이민자 등
교육 과정	연 3기 - 속성 초급1 A, B 주5일 (세종한국어1~2) - 일반 초급1 A, B 주3일 (세종한국어1~2) - 일반 초급 2A, B 주3일 (세종한국어3) - 결혼이민자 대상 과정 주5일 (초급1) 교재: 세종한국어 1~3
수강료	- 속성 초급1 8주 주5회 24회 60시간: 1,800,000동. - 일반 초급1 8주 주3회 24회 72시간: 2,100,000동. - 결혼이민자 12주 주5회: 3,000,000동. - 교재비 미포함.
홈페이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klc.huvn

하이퐁 세종학당은 2018년에 베트남 북부 하이퐁시에 하이퐁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 연계형으로 개설된 세종학당이다. 하이퐁은 하노이, 호치민, 다낭, 껀터와 함께 베트남의 5대 중앙 직할시 중 하나, 북부 주요 경제 지역의 중심지, 북부의 최대 항구 도시,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한국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세종학당이 비교적 늦게 설립된 지역이다. 베트남에서 ‘항구 도시’ (thành phố cảng)이라는 비공식 명칭으로 널리 불리는 하이퐁은 바다로 나가기 위한 주요 갑문, 북부 바닷길을 잇는 교통 허브이자 주요 경제지역과 중월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주요 교통 허브이다. 하이퐁은 베트남 북부의 두 번째 공업지대이기도 한데, 하이퐁의 핵심 산업은 식자재 가공, 경공업, 중공업 등이며, 조선, 강관, 파이프, 직물 등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들로 꼽혔다. 도시이지만 면적 3분의 1이 농업에 이용되고 농촌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이퐁에서는 산업 외에 농-림-어업도 굉장히 발전한다. 바다와 접한 도시로서 관광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퐁의 대표적 관광지로 도선(Đò Sơn) 해변과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깃바(Cát Bà)섬 등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인천행 직항 노선이 있는 깃비(Cat Bi)국제공항이 위치하여 하이퐁과 인천, 베트남과 한국 간의 사회-경제적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퐁시의 자매도시 중 한국의 인천광역시가 있는데, 양 도시의 결연은 1997년부터 맺어졌으며 문화-의료사업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다.

하이퐁 지역에는 1995년 LG디스플레이 하이퐁공장과 VPS·포스코가 진출한 후 전자, 철강, 기계, 건설, 화학, 의류,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수십 개에 달하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과 공장들이 현지화에 성공하였다. 2017년 기준 한국은 하이퐁에 87개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하이퐁의 최대 해외 투자자이다. 이로 인해 하이퐁 인민위원회에서는 한국기업을 위한 지원단을 창립하기도 하였다. 하이퐁에 진출한 대표적 한국기업은 LG가 있는데, 2015년에 LG전자가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를 준공하였고, 2017년에 LG디스플레이가 첫 번째 베트남 생산기지이자 세계 최대 생산 라인들 중 하나인 공장을 환공하였다. LG화학도 그 후 하이퐁에 편광판 생산공장을 가동하였다.

부산외대는 이 상황에서 지역 내 한국어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키우기 위해 2015년에 지역 명문대인 하이퐁대학교와 손잡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이어 2016년에 하이퐁 지역에서 최초 한국어 교육기관인 부산외대-하이퐁한국어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인 강사를 직접 파견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두 학교의 지속적인 협력의 결과로 2018년에 하이퐁 세종학당이 탄생하였고, 지역의 한국기업의 한국어 인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이퐁 세종학당은 대학교 내 세종학당이기에 때문에 하이퐁대의 대학생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고, 이 외에는 직장인, 고교생, 결혼이민자 등 일반인들도 이곳을 찾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희망을 실천한다. 하이퐁은 베트남 내 결혼이민자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하이퐁시의 여러 구역 가운데 끼엔투이(Kien Thuy)현(한국 행정단위로 치면 ‘군’에 해당)의 다이협(Dai Hop)읍이 ‘신부 수출 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읍 인구의 약 10분의 1인 1000여 명¹⁶⁾이 결혼이민여성이다. 다른 예로 하이퐁시 투이응우옌(Thuy Nguyen)현에 있는 ‘홍응옥’(Hong Ngoc)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곳은 한국 신랑과 베트남 신부를 연결해주는 ‘거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이퐁과 인접한 하이즈엉(Hai Duong)성에도 베트남 북부에 한국행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지역인데, 연구자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당연히 해당 두 지역에 세종학당이 있고 오래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하이퐁 세종학당은 운영된 지 만 4년도 안 되었고, 하이즈엉 지역에는 세종학당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이 지역들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인터넷 자료로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두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타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하이퐁·하이즈엉 지역 한국어교육기관 지정 안내”에 따르면, 하이퐁 지역에는 ‘한글세계화운동본부 하이퐁 한글어학당’이라는 기관이 하이퐁 지역에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을 주요 실시하는 기관이고, 하이즈엉 지역의 경우 ‘한베문화교류센터’라는 비정부단체의 ‘한국어교실’이 예비신부들이

16) Ha Loan, “북부 내 가장 많은 신부를 ‘수출’ 한 곳”, 수도보안 신문, 2015.04.19., <https://www.anninhthudo.vn/noi-xuat-khau-co-dau-lon-nhat-mien-bac-post236072.antd>

주요 찾는 한국어 교육센터이다. 이 사실은 하이퐁 세종학당의 교육과정 중 다른 과정보다 늦게 도입되고 주요 과정으로 운영되지 않는 결혼이민자 대상 수업의 상황을 반영한다.

하이퐁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연 3학기제로 운영되고, 고정 학기 외에도 수요에 따라 수시 개설되는 과정들이 있다. 기본 교육과정으로 초급1~2가 있는데 주3일 일반 과정이 있고 주5일 속성 과정이 있다. 교재는 초급1~2 수준에 해당된 <세종한국어1~4>까지이다.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모집하고 성사된 과정은 초급1A&B 및 초급2A이며, 초급2B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모집 과정 중에 있으나 실제로 운영된 경우는 초급1A~2A보다 뜸하다. 중급과정은 아직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강료는 지역 내 대부분 세종학당과 비슷하나 교재비를 따로 내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더 높은 편이다. 현재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고히 줄어들면서 지역 내 세종학당들도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50% 및 오프라인 50% 또는 전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데, 하이퐁 세종학당은 2022년 2기 수강생 모집 계획에서 여전히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현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4학기 모두 대면수업으로 진행하였으나, 2021년 들어 수업이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SNS 학생 모집 게시글을 통해 파악되었다.

[표 8] 하이퐁 세종학당 2022년 1기 강의계획(안) (연구자 정리)

순	과정	반수	교재	대상	진행 방식
1	초급 1B	1	세종한국어 2	D4-6, F4, H2 비자 취득용 자격증 희망자 등	온라인
2	초급 2A	1	세종한국어 3	상세정보 없음	온라인
3	초급 2B	1	세종한국어 4	D3 비자 취득용 자격증 희망자 등	온라인
4	결혼이민 자	1	세종한국어 1, 2	F6 비자 취득용 자격증 희망자 등	온라인
합 계		4			

[표 9] 하이퐁 세종학당 2022년 2기 강의계획(안) (연구자 정리)

순	과정	반수	교재	대상	진행 방식
1	초급 1A	2	세종한국어 1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자	온라인
2	초급 1B	2	세종한국어 2	D4-6, F4, H2 비자 취득용 자격증 희망자 등	온라인
3	초급 2A	1	세종한국어 3	상세정보 없음	온라인
합계		5			

하이퐁 세종학당의 인력은 SNS상 학생 모집글에서 밝혀지지 않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해당 세종학당의 교육대상은 대부분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일반인, 하이퐁 지역 고등학생이며, LG디스플레이와 같은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 기업과 기관의 직원을 받아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놀이, 한글날 행사, 한국음식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주었다.

하이퐁 세종학당은 운영된 지 4년에 불과하나, 2021년 세종학당 운영 기관 워크숍 발표자료집에 따르면 같은 해 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되었다. 지역 내 한국기업, 기관들과 연계하여 좋은 결과를 거둔 사업들과 코로나19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2019~20년 사이 100% 이상 급증한 수강생 수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이퐁 세종학당이 결혼이민자가 많다는 지역의 특징을 지니지 않더라도 본 연구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이유는 지역의 다른 특징을 성공적으로 살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기업과 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2020년 하이퐁 세종학당에서는 고등학교 대상 한국어반 4개를 개설하였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후원하는 한국기업 CSR 강좌도 개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재단의 지원으로 2020년 5월 행정전자를 시작으로

하이퐁 지역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출강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하이퐁 세종학당이 교육 운영을 주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LG디스플레이,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장애인고용공단 등 기업, 기관들이 후원한다. 중소기업 대상 한국어 출강 지원은 연 3학기로 운영하는데, 교육 대상은 협력사 소속 베트남 직원들이다. 수업은 저녁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씩 주2회 기업 내 교육장에서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마친 후 수업에 들어간다. 교재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현지 직원들의 수준에 맞게 초급과정의 시작인 <세종한국어1>을 사용한다. 이러한 수업은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개설 계획을 수립하는데, 하이퐁 지역 내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이라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하이퐁 한국어 교육 사회공헌 사업은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한국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혔다.

다시 말하면 하이퐁 세종학당의 성공 요인은 그간 수강생 증가 등 같은 것도 있지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체험 강의 출강을 통해 지역 연계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해당 세종학당이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렸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꾸이년 세종학당

[표 10] 꾸이년 세종학당 기본 정보 (연구자 정리)

설립연도	2016년
유형	협업형 (용산구, 세종학당재단)
운영기관	용산구
인력 정보	학당장 파견교원 3명 (SNS 모집글에 의거 파악)
수강생 수	연 400명 내외 (교육과정 수에 의해 추정)
교육 대상	지역 고교생, 공무원 등 일반인
교육 과정	연 2기, 학기당 16주 - 초급1~2 (세종한국어 1~4) - 중급1 (세종한국어 5) - 회화 2A - K-Wave 교재: 세종한국어 1~5
수강료	무료 (반 운영비 25만동)
홈페이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QUYNHONSEJONG

본고에서 꾸이년 세종학당을 하나의 성공적 운영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베트남 중부지역 세종학당들 중 우수한 학당일 뿐 아니라 전 세계 협업형 세종학당 가운데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선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꾸이년 세종학당은 베트남 중부지역 꾸이년시와 대한민국 용산구 간의 자매결연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용산구청과 세종학당재단 간의 협업을 통해 2016년에 설립된 세종학당이다. 협업형 세종학당의 특징은 제 1장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단이 재외공관,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운영하는 세종학당으로, 일반 세종학당과 달리 지원금을 받지 않고 교원과 교재를 지원받아 운영한다. 재단은 협업형 세

종학당 1개소당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용산구를 비롯한 한국 지자체들이 해외 도시들과 교류를 이어오면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던 때 세종학당재단을 만나 협업형 세종학당이라는 방법을 찾았다.

꾸이년시와 용산구의 자매결연은 1996년부터 맺어졌고 양 도시는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 ‘꾸이년’이라는 거리(퀴논길)가 있고 꾸이년시에 ‘용산거리’가 있는데 이는 양 도시의 친밀한 관계의 결과이다. 양 도시의 교류관계 20주년을 맞은 2016년에 또 다른 결과가 성립되었는데, 바로 꾸이년 세종학당의 탄생이다.

꾸이년시는 베트남 중부 빙딩(Binh Dinh)성 동남쪽에 있는 항구도시로 인구 30여만 명이 살고 있다. 아름다운 바다 여행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400여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꾸이년시는 산과 숲, 해안 등 환경이 좋아 풍부한 농-림-축산업과 어족자원을 가지고 있다.

꾸이년시는 베트남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다낭, 나트랑에 이어 베트남 중부지역 내 세 번째로 큰 관광 도시이다. 꾸이년시는 2020년 아세안 청정 관광 도시 부문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천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간직돼 있는 이 곳은 다낭과 나트랑보다 한국 관광객이 가장 적게 찾는다. 그 이유는 한국과 연결되는 직항 비행기가 없으며, 가장 가까운 베트남 국내 공항에서 도착하여 버스로 이동하여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을 즐기는 한국인들에게 이곳은 역시 베트남 관광지 가운데 꼭 가야 할 곳으로 소문나고 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설치된 꾸이년 세종학당은 용산구청의 운영 하에 용산국제교류사무소와 같이 3층짜리 건물에 위치해 있다. 1층에는 홍보관과 응접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한글도서관, 3층은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초 용산구는 용산국제교류사무소 증축 및 개보수를 진행하였는데 이 공사는 꾸이년 세종학당 운영에도 의의가 있다. 해당 공사의 내용은 1층 홍보관 내 한복 전시 및 체험 공간 마련, 3층 강의실 확장,

기타 노후시설·장비 개선 등이다. 기존 강의실 공간이 부족해 일부 학생들이 외부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는데 이번 공사를 통해 학습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는 세종학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용산구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꾸이년시도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학당을 위한 용산구와의 한마음임을 보여주었다.

꾸이년 세종학당에서는 현재 초-중급 한국어 및 기초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수강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부터 꾸이년시의 종합병원, 꾸이년시를 비롯한 빙딩성의 공무원 등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전체 학습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직장인과 일반 주민들이다. 매 학기 약 10개 반 300여 명의 규모의 수강생이 세종학당을 다니며 1년 4학기제이기 때문에 매년 약 1200명의 수강생이 회원 등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당 운영 첫 해부터 40명 모집에 800명이 신청한 바 있는데 초기부터 세종학당과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는 숫자이다. 한국어 수업 외에도 K-Pop, 한복 체험, 한국요리교실 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당의 수강생 가운데 취미로 배우는 학습자가 많은데 한국어 수업 중에 K-Pop, 한국음식, 드라마 등이 함께 소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수업 이해와 집중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일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학습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학당의 수업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호감을 가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표 11] 꾸이년 세종학당 2022년 1기 강의계획(안) (연구자 정리)

순	과정	반수	교재	대상	진행 방식
1	초급 1A	7	세종한국어 1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자	오프라인
2	초급 1B	2	세종한국어 2	초급 1A 수료자	오프라인
3	초급 2A	1	세종한국어 3	초급 1B 수료자	오프라인
4	초급 2B	1	세종한국어 4	초급 2A 수료자	오프라인
5	중급 1A	1	세종한국어 5	초급 2B 수료자	오프라인
합계		12			

[표 12] 꾸이년 세종학당 2021년 2기 강의계획(안) (연구자 정리)

순	과정	반수	교재	대상	진행 방식
1	초급 1A	3	세종한국어 1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자	온라인
2	초급 1B	2	세종한국어 2	초급 1A 수료자	온라인
3	초급 2A	1	세종한국어 3	초급 1B 수료자	온라인
4	초급 2B	1	세종한국어 4	초급 2A 수료자	온라인
5	초급 회화 2A	1	회화 3	초급 2A 수료자	온라인
6	K-Wave	1		초급 1B 수료자	온라인
합계		9			

꾸이년 세종학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 외에도 2019년부터 레꾸이돈(Le Quy Don) 영재고등학교에 출장 수업도 제공하고, 2020년부터는 꾸이년시관광협회의 요청으로 관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특강도 진행하였다. 이는 관광도시의 특성상 한국 관광객 유치 및 서비스를 위한 노력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수업들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나왔다. 세종학당 덕분에 양 도시의 인적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종학당 수강생 중 우수한 성적을 받아 용산구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 기회를 얻은 학생도 있고, 용산구청의 직원도 꾸이년시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베트남어와 베트남문화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 세종학당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 꾸이년 세종학당은 최근 SNS 확인한 결과 사태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오프라인 수업을 재가동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세종학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들 간에 운영 관

리 관련해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꾸이년 세종학당의 경우 이와 다르게 유관기관들 간의 손발이 맞는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운영에 있어서는 꾸이년시에서 건물 제공, 전기·수도·통신 등 경비를 부담하고, 세종학당재단은 교원, 교재 및 프로그램 지원, 용산구청은 운영 인력 및 파견 교육 비자, 시설 관리 등을 맡는다. 그 결과로 지난 6년 동안 꾸이년 세종학당이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운영 3년차인 2019년에 우수 운영 지자체인 용산구를 재단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꾸이년시와 용산구 양 도시의 노력과 재단의 협력, 교원들의 책임감, 꾸이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 수가 매년 늘고 있으며, 꾸이년 세종학당은 꾸이년시의 대표적 한국어 교육기관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성공적인 사례로 선정된 이유는 물론 재단과 지자체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는 면도 있으나, 그에 앞서 양 도시 간의 끈끈한 협력 역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양 도시가 함께 한 26년 동안 많은 문화교류,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용산구와 꾸이년시가 전통문화 교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꾸이년시에서 한국요리, 용산구에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을 때 꾸이년 시민과 학생 250여 명이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용산구립종합타운 등에서는 또한 베트남 강좌를 진행하기도 한다. 25주년이 된 2021년에는 한옥 건립, SNS를 이용한 사이버 어학당 운영 등을 통해 꾸이년 세종학당 학생들과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 용산구청 직원들을 연결할 계획이 있다고 알려졌다. 용산구는 2021년 1월 베트남 주요 경제협력기구인 VKBIA (Vietnam-Korea Business and Investment Association, 베-한 경제인 및 투자협회)와 경제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향후 경제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한글, 베트남어 등 교류에 필요한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기술이전,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운

영하기로 하였다.

용산구는 또한 민간단체, 기업, 대학, 병원 등과 협력하여 꾸이년시 우수학생의 한국유학지원사업 외에도 무주택 빈곤 가정을 위한 ‘사랑의 집’ 주택기증사업, 백내장질환 치료 등 의료지원사업, 공무원상호교환근무사업, 베트남 빙딩성 투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양 도시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다.

교육 자체도 효과가 있지만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은 공감대 형성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꾸이년 세종학당은 도시 간의 협력을 전제로 운영되는 학당이기에 세종학당의 수강생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외에 용산구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꾸이년시로 근무 교환 파견 온 한국 공무원들도 베트남어와 베트남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향후 꾸이년시의 한국 관광객 서비스가 보다 발전하면서 양국의 문화적, 인적 교류, 정서적 교류도 같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현재의 화려한 결과가 성사되기 전에 해당 학당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쉽지 않다. 꾸이년 세종학당이 생기기 전부터 용산구가 재단의 도움 없이 직접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교원 전문성과 같은 교육의 질 관련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또,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이에 맞는 교안도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도 했다. 꾸이년 세종학당이 설립되기 전인 2016년 3월에 용산구에서 꾸이년시와 협력하여 직접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직원을 꾸이년에 파견 보내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체계를 갖춘 전문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므로 같은 해 9월에 세종학당을 설립해 전문성을 갖춘 교원과 체계적인 교과과정이 갖추어지면서 교육의 질과 학습자들의 학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윤성배 학당장이 토로하였다.¹⁷⁾

17) 2020 소식지 세종학당 제16호.

제3절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표 13]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기본 정보 (연구자 정리)

설립연도	2010년
운영기관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인력 정보	- 교원 4명 (파견교원 2명, 현지교원 2명) - 운영요원 1명 (2022년 기준)
수강생 수	600여 명 (연 2학기, 각 학기 300여 명)
교육 대상	하노이 지역 일반인,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15세 이상 현지인 (한국어학 전공자, 한국 국적자 제외)
교육 과정	연 2~3기 - 기본 과정: 초급1&2, 중급1&2 (세종한국어1~8 사용) 15주 주1~2회 60시간 내외, 16개 반 교육 기간; 연 2학기 (1학기: 4~7월, 2학기: 9~12월) - 특별 과정: 세종한국어 회화, 여행, 비즈니스(중급1), 문화 수업, 토픽 3주 6~12시간 교재: 세종한국어1~8, 회화, 자체제작 교재 등
수강료	무료 (교재 무료 제공)
홈페이지	문화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vietnamkcc 문화원 홈페이지: https://vietnam.korean-culture.org/ko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의 세종학당은 한국문화원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아 단독 운영하는 문화원 내 세종학당이다. 베트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은 2010년에 정식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사실 문화원에서 그전인 2007년부터 문화원의 개원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단의 출범한 2012년부터야 체계적인 교육과정, 교재 등이 갖춰지기 시작하였고 효과적인 운영에 들어설 수 있었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문화원 세종학당에서 사용하였던 교재는 건국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였다. 교재는 그랬지만 문화원이라는

한국 공공기관의 이름과 그 당시 현지 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한류 열풍과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초급과정으로만 시작한 세종학당들과 달리 처음부터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가지고 한국어를 보급하였다. 이를 전제로 세종학당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두 가지의 교육과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날이 갈수록 수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노이의 대도시 위치와 한국 문화원의 위상에 맞게 기본 한국어 교육과정에 이어 다양한 특별 과정도 갖추고 있다. 현지 학습자의 수요에 의해 회화, 비즈니스, 여행, 문화, 토픽 반 등이 그 예이다. 최근에는 한류 유행을 반영해 인기 최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활용한 결과 “BTS와 함께 하는 한국어” (Learn! KOREAN with BTS)라는 3주 단기 특별 교육과정이 생겨났다. 해당 수업은 최근 세종학당의 2022년 1학기 교육과정에 특별 과정으로 추가되었는데 초급1에 상당한 수준이므로 많은 BTS팬의 관심을 끌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까지 사용되었던 교재는 초-중급 수준에 해당되는 세종한국어1~6이었는데, 2021년부터 세종한국어7~8도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변화는 학습자의 수요와 수준이 증가하였다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3]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2022년 1기 운영 계획(안)

(출처: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순	반명	과정	교재	반 (개반)	대상
1	세종 1	초급 1A	세종 한국어 1	2	신입생
2	세종 2	초급 1B	세종 한국어 2	3	세종 1수료자, 초급 1A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3	세종 3	초급 2A	세종 한국어 3	3	세종 2수료자, 초급 1B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4	세종 4	초급 2B	세종 한국어 4	3	세종 3수료자, 초급 2A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5	세종 5	중급 1A	세종 한국어 5	2	세종 4수료자, 초급 2B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6	세종 6	중급 1B	세종 한국어 6	1	세종 5수료자, 중급 1A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7	세종 7	중급 2A	세종 한국어 7	1	세종 6수료자, 중급1B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8	세종 8	중급 2B	세종 한국어 8	1	세종 7수료자, 중급2A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9	합계	기본과정		16	

[사진 4]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2021년 2기 운영 계획(안)

(출처: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순	반명	과정	교재	반 (개 반)	대상
1	세종 1	초급 1A	세종 한국어 1	2	신입생
2	세종 2	초급 1B	세종 한국어 2	2	세종 1수료자, 초급 1A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3	세종 3	초급 2A	세종 한국어 3	3	세종 2수료자, 초급 1B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4	세종 4	초급 2B	세종 한국어 4	2	세종 3수료자, 초급 2A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5	세종 5	중급 1A	세종 한국어 5	1	세종 4수료자, 초급 2B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6	세종 6	중급 1B	세종 한국어 6	2	세종 5수료자, 중급 1A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7	세종 7	중급 2A	세종 한국어 7	1	세종 6수료자, 중급1B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8	세종 8	중급 2B	세종 한국어 8	1	세종 7수료자, 중급1B 한국어 능력 갖춘 사람
9	특별반	특별	세종한국어 회화/ 여행, 비즈니스, 문화수업 예정	3	*별도 공지될 예정 *현황에 따라 강좌 운영 기간, 운영 방식 (오프라인, 온라인) 등 변경될 수 있음
10	합계	기본과정 & 특별과정		17	

운영 초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차이가 나기 마련이고 다양한 변수에 따라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문화원 세종학당의 기본 교육과정은 연 2~3학기, 1학기 12~15주, 주1~2회 60시간 내외, 14~16개의 반으로 구성된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2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1학기는 4~7월, 2학기는 9~12월이고 학생 모집은 한 달 전부터 진행한다. 앞에 말했듯이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특별 과정이 수요에 따라 개설-운영되는데, 교육기간은 몇 주에서 기본과정처럼 10주 이상으로까지 길게 설계될 수 있다. 베트남 문화원 세종학당의 수업은 18명으로 수강인원이 제한된다. 수강생은 15세 이상 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일반인인데 이들은 무조건 문화원 회원 가입해야 되고, 한국(어)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 한국 국적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문화원 세종학당의 수강생 수는 연 600명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과정도 수강생 수도 일반 세종학당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교원 수는 현지교원 2명, 파견교원 1~2명으로 다른 세종학당보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현지 교육기관들이 온라인 교

육으로 전환하게 만들었고 문화원 세종학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이 골고루 병행되었다. 문화원 세종학당은 2019년 3학기까지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았으나, 2020년부터 수강료가 무료인데다가 교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수강료는 1백4십만 동(약 7만원)이었고, 전 학기 우수 성적을 받은 수강생에 한하여 장학금 4종을 수여하기도 하였다.¹⁸⁾

2019년까지는 학당 소식 전달과 학생 모집, 안내 등이 문화원의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원 세종학당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문화원 세종학당의 페이스북과 문화원의 페이스북이 하나로 통합되어 세종학당 관련 공지사항은 이때부터 문화원의 소식과 함께 한 곳에서 공지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원 운영과 세종학당 운영이 편리해졌고, 수강생 입장에서도 문화원의 사이트와 SNS에서 학당 소식을 받을 때 다양한 문화 소식도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문화원 SNS 활동이 세종학당의 SNS활동보다 훨씬 더 빈번하기 때문에 세종학당 소식만 접하고 싶을 때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세종학당 관련 공지는 문화원 웹사이트에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수강생이 세종학당 소식을 받으려면 문화원 웹사이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봐야 한다.

문화원에 속한 세종학당으로서 다른 유형의 세종학당에 비해 한국문화를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화원 세종학당을 다니는 학습자는 학당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외에도 문화원의 다양한 문화 사업을 같은 장소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고, 문화원은 또한 세종학당 학생을 위한 혜택들을 제공한다. 문화원 세종학당은 문화원 회원에게 수강신청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전 학기 수료자에게 다음 교육과정을 신청할 때 최초 신청자보다 수강신청 기회를 먼저 주고, 문화원 회원이 아닌 최초 신청자보다 문화원 회원에게

18) 2019년 기준 베트남 문화원 세종학당의 전 학기 우수성적 학습자 장학금은 1) 70만 동, 2) 98만 동, 3) 1백12만 동, 4) 1백26만 동 등 총 4종이다.

수강신청 기회를 먼저 주고, 전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이 아닌 최초 신청자들은 신청하고자 하는 반에 인원이 부족해야 추가 모집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생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종학당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문화원 내에 있는 세종학당으로서 학당의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때 문화원의 문화행사 개최 경험을 참고할 수 있거나, 원내 행사와 연계할 수 있으므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전문성 있는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은 2006년 11월 개원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한국-베트남 양국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의 산하기관이다. 베트남 한국문화원은 원내에 전시관, 도서관, 체험관, 한국어 강의실 등이 있어 방문객과 회원에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는 사업을 매년 꾸준히 개최함으로써 하노이 외 다낭, 호치민 같은 대도시, 한국문화 사각지대 등을 비롯한 베트남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세종학당이 이곳에 설립되기 전부터 한국문화의 한 축인 한국어 보급이 문화원 사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첫 세종학당이 문화원에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원은 자연스럽게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모 기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9년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이 생기기 전에 베트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의 연차보고서에서 ‘거점’으로 등장한 적이 많았고, 실제로 현재 거점 세종학당이 하고 있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재단이 출범한 2012년부터 거점 세종학당이 생기기 전년도인 2018년까지 매년 현지 내 세종학당들 간의 워크숍 개최하기, 세종학당들의 애로사항 종합 및 재단에 보고하기, 세종학당들 간 문화행사 개최 등 학당들을 연결하는 대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거점 세종학당이 생긴 뒤 워크숍 행사와 현지 내 세종학당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거점 세종학당에서 맡게 되었으나, 2021년 문화원 SNS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베트남 내 세종학당들을 소개하는 “우리는 세종학당 시리즈”가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

었다. 이 작은 디테일에서 연구자는 문화원 세종학당과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든다. 2020~2022년 문체부의 ‘한국어 확산 계획’에서 “재외 한국문화원을 한국어 확산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별 특성화 추진과 현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거점 세종학당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국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 연구자의 능력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다만 거점 세종학당이 있는 국가가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총 3곳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전자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을 베트남 전역 세종학당 가운데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을 처음으로 또한 오래 운영하는 기관이기도 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음으로써 수강생 수, 교육과정 등 갈수록 다른 세종학당보다 양적-질적으로 압도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문화원의 특성을 잘 살려서 문화원 세종학당을 차별화하였으며, 현지 내 모든 세종학당을 서로 연결하는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대표적인 세종학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세종학당과 거점 세종학당의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발견되어 향후 어떻게 풀릴 것인지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절 거점 세종학당

[표 14]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기본 정보 (연구자 정리)

설립연도	2019년
유형	거점
운영기관	세종학당재단
인력 정보	- 학당장 1명, 교원 ?명 (파견교원 ?명, 현지교원 ?명) - 운영요원 ?명
수강생 수	1000명 내외 (교육과정 수에 의해 추정)
교육 대상	현지 고교생, 한국문화 애호가, 일반인 등
교육 과정	연 4기 학기당 9~10주. 이외 단기과정 등 초급1~2, 중급1~2, 토픽(3,4급), 회화(중급1), 비즈니스, 여행, 문화, 결혼이민자 대상 수업 등 교재: 세종한국어1~8, 회화 등
수강료	(2022년 2기 기준) 초급1~2 주3회 (회당 1시간30분) 또는 주2회 (회당 2시간30분): 1,800,000동 비즈니스 주3회 (회당 1시간30분): 1,500,000동 중급 회화 주2회 (회당 2시간30분): 1,500,000동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홈페이지	웹사이트: http://ksicvietnam.sejonghacdang.org/blog/main.ksif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Vietnamkingsejonginstitute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은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을 총괄-지원하고 베트남 내 한국 문화 보급의 중심 역할을 할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을 2019년 2월 말에 베트남 남부지역 대도시 호치민시에 개원하였다.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재단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베트남 지역 본부로 해당 지역 내 세종학당들 총괄-지원 외에 현지 교원 연수, 한국문화 전문가 파견, 한국어 교재 출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립 초기에 운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거점 세종학당의 탄생은 베트남 내 세종학당들 간

네트워크가 보다 탄탄해지고 긴밀해지며, 한국어 교육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문화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운영한 지 3년이 돼가는 거점 세종학당은 짧은 시간 동안 화려한 실적을 이루었다. 아직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의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지만, 거점 세종학당의 SNS(페이스북)에 게시된 활동사진과 꾸준히 올라온 게시글만 봐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거점 세종학당의 SNS 게시글 수와 사진 자료가 현지 내 다른 세종학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게시물 하나에 들어있는 상세한 정보와 디자인 정성을 누가 봐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거점 세종학당의 페이스북을 살펴본 결과, 개원 초기에는 사물놀이, 한식, K-Pop 등 세종문화아카데미 문화 수업들로 시작해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의 주목을 유치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한국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점 세종학당은 호치민 지역 기존 우수 세종학당들, 협력기관들과 손잡아 다양한 한국어,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학당의 입장에서 경험을 배우고 거점답게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2022년 2기 거점 세종학당 강의시간표 (연구자 정리)

순	과정	반수	교재	대상	진행 방식
1	초급 1A	2	세종한국어 1	한국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자 또는 토픽1 1급 능력 - 레벨테스트 1A 갖춘 자	오프라인 100%
2	초급 1B	3	세종한국어 2	초급 1A 수료자 또는 토픽1 1급 능력 - 레벨테스트 1B 갖춘 자	오프라인 100%
3	초급 2A	2	세종한국어 3	초급 1B 수료자 또는 토픽1 2급 능력 - 레벨테스트 2A 갖춘 자	오프라인 100%
4	초급 2B	2	세종한국어 4	초급 2A 수료자 또는 토픽1 2급 능력 - 레벨테스트 2B 갖춘 자	오프라인 100%
5	중급 1A	1	세종한국어 5	초급 2B 수료자 또는 토픽2 3급 능력 - 레벨테스트 3A 갖춘 자	오프라인 100%
6	중급 1B	1	세종한국어 6	중급 1A 수료자 또는 토픽2 3급 능력 - 레벨테스트 3B 갖춘 자	오프라인 100%
7	중급 2A	1	세종한국어 7	중급 1B 수료자 또는 토픽2 4급 능력 - 레벨테스트 4A 갖춘 자	오프라인 100%
8	중급 2B	1	세종한국어 8	중급 2A 수료자 또는 토픽2 4급 능력 - 레벨테스트 4B 갖춘 자	오프라인 100%
9	비즈니스 1	1	비즈니스 한국어 1	초급 2A 수료자	온라인 100%
10	회화 (중급1A)	1	세종한국어 회화 3	초급 2B 수료자	온라인 100%
11	TOPIK (3, 4급)	1	교원 자체 준비 교재	중급 1B 이상 수료자	온라인 100%
합계		15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2019~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생 세종학당이지만 처음부터 한국어 교육과정이 기본 과정부터 특별 과정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은 문화 프로그램으로 하였지만, 한국어 교육 과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운영 1년 뒤에 다채로운 카테고리로 출발하였고, 실제로 수강생의 반응과 참여도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거점 세종학당의 SNS에 게시된 2021년, 2022년 거점 세종학당 운영 계획안을 보면 베트남 전국 그 어느 세종학당보다도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모집 예정 수업 수가 가장 많다. 초급1~2부터 비즈니스, 중급 회화, 여행, 토픽, 문화, 결혼이민자 대상 수업 등 스펙타클러한 옵션이 제공되고 매 학기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된다. 초급, 중급, 회화, 토픽 수업이 처음부터 개설되었고, 비즈니스 수업 같은 경우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 거점 세종학당의 수강료는 대부분 지역 내 세종학당과 비슷한데 교재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이퐁 세종학당과 차이점이 있고 한국문화원 세종학당과 공통점이 있다.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효과적인 운영과 현지 내 국내 기관과의 협력, 현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재단은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을 개원한 그 당시에 해당 거점 세종학당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센터와 협력해 한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호치민 지역 내 세종학당 학습자 및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번째, CJ ENM과 협력해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도록 창작 스튜디오 활용을 지원하며,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장학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립 초기에 발표되었던 계획들은 실제로 활발히 실천되고 있다. 이로써 거점 세종학당은 연혁이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하우가 많은 같은 지역의 우수 세종학당들, 국내외 기관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경험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기관과만 손잡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 기관인 명문대학들과도 협력을 추진하는 거점 세종학당의 노력은 현지 기관에 고유한 신뢰가 있는 현지인에게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노출시키고 홍보할 수 있고, 지역 내 한국어 교육-한국문화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현지 정부에도 호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년간 거점 세종학당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는 거점 세종학당 설립 전까지 학당들을 연결해주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점은 문화원의 일을 줄여주었고, 보다 명분 있는 모기관의 모습을 긍정하였다. 실제로 거점 세종학당은 2019년 설립 이후 그전까지 문화원이 매년 주관하였던 현지 세종학당 간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동남아시아 세종학당 현지 채용 교원 워크숍에 이어 한-베 수교 30주년과 재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2022 베트남 세종학당 워크숍’도 개최하였는데, 이 워크숍은 재단 출범 10년, 세종학당 설립 15주년을 맞아 큰 규모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거점 세종학당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다.

거점 세종학당은 거점답게 전 세계 세종학당의 한계점 중 많이 언급되던 교원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2020 세종학당 특성화사업 결과자료집>에 따르면,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2020년에 ‘베트남 현지 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업은 학당 ‘자율제안형’이라는 점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거점 세종학당의 인식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5월부터 7개월 간 총 99회로 온-오프라인 강의, 실습, 수습근무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24명의 참가자를 기록하였고 베트남 TV뉴스와 각종 언론사이트 및 신문에 홍보되었다. 해당 사업은 또한 세종사이버대학교와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와의 협력을 성사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인 세종학당 현지 교원이 19명이나 확보되었으며, 건너, 후에 등 현지 교원 확보에 애로가 있는 지역

에 교원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은 또한 베트남 제2외국어 및 제1외국어 채택 관련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은 2019년 출범한 이래 운영기간이 다른 세종학당보다 짧은 편이지만 거점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거점의 주요 역할인 지역 내 세종학당 총괄 지원부터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보급,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 등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수행해 왔다. 현재로서 거점 세종학당과 관련하여 시사점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은 거점의 역할을 했던 한국문화원 세종학당과 어떻게 차별화할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5절 소결

이상에서 베트남 내 세종학당 4곳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사례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베트남 전 지역의 운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4곳의 학당은 공통적인 점도 있고, 각 학당만의 특징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세종학당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하고, 제2장에서 설정한 가설이 맞는지 이 절에서 밝히고자 한다.

4곳의 세종학당의 공통점은 먼저 교육과정으로 모두 초급과정과 특수 과정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4곳 가운데 가장 교육과정 규모가 작은 하이퐁 세종학당은 남은 3곳보다 중급 과정이 가장 적어 보이지만 초급 과정이 꾸준히 운영되고, 특수 과정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수업이 있다. 문화원과 거점 세종학당은 규모가 큰 학당으로서 기본 교육과정부터, 특수과정, 문화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지방 세종학당치고 꾸이년 세종학당도 모든 교육과정과 문화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이 관찰되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 세종학당 4곳은 세계 세종학당들과 같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심했을 때 전면적으로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일상이 정상화되면서 오프라인 수업이

점차 재개되었고, 수업 방식이 계속 변동된 해당 시기에도 수강생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심지어 팬데믹 전보다 증가세를 보인 곳도 있었다.

셋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세종학당 4곳은 각 학당의 유형적 특징, 지역적 특징을 잘 살렸다고 할 수 있다. 하이퐁 세종학당의 경우 지역 내 한국기업이 많은데 이 기업들과 협력을 맺어서 기업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 한국어 사용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학당과 기업, 기업과 현지 정부 간의 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경우 현지 지방 정부와 한국 지자체 간의 끈끈한 결연과 거점 세종학당과 지자체의 원활한 협업으로 성공한 것뿐 아니라 지역 내 학습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자체 수요와 한국 관광객에게 잠재적 관광도시라는 점도 꾸이년 세종학당을 성공 사례로 만들었다. 문화원 세종학당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운영 과정, 다양한 문화행사와 운영 노하우를 가진다는 문화원의 강점을 세종학당 운영에 잘 활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집중 분석 대상으로 삼아지지 않았던 점에서 볼 때 소개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거점 세종학당은 연혁이 짧지만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단기간 내에 거둔 성과로 성공적인 사례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

베트남 내 세종학당 4곳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남아있는 과제들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다. 하이퐁 세종학당의 경우 현지 내 한국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잘 발휘했다는 장점 외에 결혼이민자가 베트남 북부에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운영 방향을 더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도입된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경우 성공적인 협업형으로서 향후 생길 베트남 내 협업형 세종학당을 설치할 때 참고할 만한 모범적 모델이고, 현지 내 협업형 세종학당의 활발한 설치의 시작점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문화원과 거점 세종학당은 앞으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어떻게 이어나갈 건인지가 두 학당이 풀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4곳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제2장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하이퐁 세종학당은 결혼이민자가 베트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므로 결혼이민자인 수강생이 많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많을 것으로 가설하였으나, 실제로 하이퐁을 비롯한 주변 도시들의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기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가설은 틀렸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경우, 중부지역 내 다낭처럼 한국 직항 비행기가 있어 한국과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꾸이년 세종학당은 크게 성공적인 운영이 없다고 가설했으나, 실제로 꾸이년 세종학당의 성공 요인은 중부지역 3대 관광도시 중 하나라는 지역적 특징과 상관없이, 꾸이년 세종학당과 자매결연을 맺은 용산구와의 지속적이고 끈끈한 협력, 용산구와 세종학당재단의 효과적인 협업이라는 유형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가설도 맞지 않았다.

3가지 가설 중에 유일하게 맞는 것으로 나타난 가설은 세 번째 가설, 즉 문화원과 거점 세종학당의 관계에 대한 가설이었다. 문화원 세종학당과 거점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각 학당의 역할이 아직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원 세종학당은 거점 세종학당이 생기기 전에 베트남 지역 내 세종학당들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해왔는데, 거점 세종학당이 설립된 후 해당 역할은 거점 세종학당에 이전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점 세종학당이 설립된 2019년 이후에도 거점 세종학당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문화원 세종학당에서 얼마 전에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세종학당들을 소개하는 것은 거점 세종학당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학당들의 정보를 소개하는 게시글은 문화원 세종학당의 SNS에서 발견되었다. 물론 거점 세종학당은 지역 세종학당들 간의 워크숍

개최를 맡아 진행한 것을 보면 역할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세종학당 관련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향후 현재 전세계 3개소의 거점 세종학당이 아닌 보다 많은 거점 세종학당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화원 세종학당과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에 대한 분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의 3가지의 가설은 각 학당의 지역적, 유형적 특징에 의해 설정되었고, 해답이 가설과 동일하건 다르건 의미하는 바가 있다. 하이퐁 세종학당에 대한 가설을 통해 이 지역 내 결혼이민자가 하이퐁 세종학당을 아직 많이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향후 하이퐁 세종학당에서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서 관련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할지 그렇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경우 지금까지 협업형이라는 유형적 특징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향후 관광도시라는 지역적 특징과 잠재력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관광통역 같은 특별 과정을 마련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세종학당과 거점 세종학당 간에 역할 인수, 분담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한다는 과제를 의미한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전 세계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현황, 전 세계 세종학당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한류 열풍이 아시아를 시작으로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한류의 확대와 함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도 생겼다.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인식한 한국 정부는 국외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들 가운데 오늘날 한국어 보급에 있어서 국가브랜드인 ‘세종학당’이 있다. 세종학당은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시작한 이래 현재 전 세계 5대륙을 커버한 82개국 234개소로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세종학당은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일반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과정과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세종학당재단의 관리 하에 각 세종학당이 국외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이나 기업, 단체, 현지 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많은데, 재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세종학당은 2010년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설립으로 베트남에서 역사가 시작하였다. 12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 내 세종학당은 21개소로 한류의 근원지인 아시아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 베트남 내 세종학당도 한류와 한국어교육과 함께 성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베트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가장 이르게 보급된 나라일 뿐더러 가장 발달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베트남 세종학당도 지속적으로 지정되었고, 교육과정, 교재 등 학당 운영과 관련된 모든 측면이 재단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내 세종학당에 대해 깊은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대표적 운영 사례 4곳을 선정하여 집중 분석하였다. 선정된 세종학당 4곳은 북부지역 하이퐁 세종학당, 중부지역 꾸이년 세종학당, 남부지역 거점 세종학당 그리고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이다. 하이퐁 세종학당은 협력사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교육 사업들이 있고 긍정적인 수강생 증가 추세가 포착되어 북부지역 세종학당 가운데 대표 사례로 선정되었다. 두 번째인 꾸이년 세종학당은 용산구청과 재단의 성공적인 협업형 세종학당인 이유로 선정되었다. 거점 세종학당의 경우 설립된 지 3년에 불과하나 눈부신 성과들과 거점의 특징 때문에 소개되었고, 문화원 세종학당의 경우 현지 내 최초 설립된 학당이자 오랜 시간 동안 거점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에 거점 세종학당과 비교되면서 분석되었다.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은 지난 12년 동안 화려한 성과를 거둔 한편, 문제점도 다소 존재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운영기관 간 역할분담 문제, 학당 설립에 있어 지역 편중 문제, 지원금 정산 문제 등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학당명 통합 문제, 사이트 운영 문제 등이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6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신규 세종학당을 지정하는 데 수요가 높은 도시 외에도 사각지대, 신흥-잠재 지역에 세종학당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 있던 다양한 교육과정에 현지 맞춤형 수요를 발견하고 현지어-한국어 통번역 같은 과정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는 학당명과 사이트 운영 활동에 대한 통합을 요했고, 넷째는 문화원 세종학당과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에 대한 구분을 제언하였다. 다섯째 제언으로 현지 한국(어)학과 소지 대학 및 사설 어학원, 유관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세종학당만의 특색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를 제안했고, 마지막으로 현지 세종학당을 포함한 전 세계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의 자료 공개를 보다 활발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2절 베트남 내 세종학당 개선방안 제언

제3장에서 논의된 지역 내 세종학당의 특징과 제4장에서 논의된 각 사례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베트남 지역 내 세종학당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 베트남 내 세종학당의 확대가 잘 되고 있는데, 이를 발판으로 향후 보다 많은 학당이 신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관광도시 등 경쟁력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세종학당이 계속 생겨날 것 같다. 세종학당이 생길 지역은 한국(어)학과가 있지만 아직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 세종학당이 아직 없는 관광도시, 한국기업이 많거나 새로운 개척지로 뜨고 있는 신흥 지역, 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덜 닿은 사각지대들인 것인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북부지역에는 한국(어)학과 소지 대학인 할롱(Ha Long)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결혼이민자가 비교적 많고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가 위치해 있는 지역인 꽝녕(Quang Ninh)성에 세종학당이 머지않아 설치될 것으로 추측된다. 타이응우옌이나 하이퐁처럼 한국기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빙푹(Vinh Phuc)성에, 하노이와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라오스와 접경한 선라(Son La)성 같은 사각지대에, 한국 관광객이 불편한 교통임에도 많이 찾는 사빠(Sa Pa) 같은 베트남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세종학당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지역의 경우 세종학당이 아직 1개소도 없는 떼이응우옌 초원 지역,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부 3대 관광도시 중 하나인 나트랑(Nha Trang)에 세종학당 지정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부지역에는 베트남 경제특구 중 하나인 년호이(Nhon Hoi) 경제특구가 있는데, 이곳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진출 촉진할 것으로 보이는 중부지역에 세종학당이 추가될 전망이다. 남부지역의 경우 세종학당이 꽤 많이 설치되었으나, 한국인 단체와 기업, 결혼이민자가 많은 롱안(Long An)성이나 남쪽으로 더 내려가 베트남의 남쪽 끝에 있는 성-도시들에도 세종학당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꾸이년 세종학당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베트남에 협업형 세종학당을 설립할 것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다. 실제로 꾸이년 세종학당을 이어 2021년에 베트남에 협업형 세종학당 2곳이 신규 지정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둘 째, 현재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이 많고 유형별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교육과정도 세계 다른 지역들보다 다양한 편이다. 최근 세종학당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 관련 논의에서 현지어·한국어 통·번역 과정, 고급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현지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 째, 베트남 현지에서 당장 해야 하는 세종학당 개선 방안으로 모든 세종학당의 명칭을 통일시키고 일관되게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명칭과 관련하여 세종학당의 명칭을 빌려 수강생을 유치하는 어학원에 대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문적 기관명을 만들기 위해 통일되고 정확히 번역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 SNS와 함께 웹사이트 운영도 정기 업데이트하는 등 보다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통합 문제이므로 현지에서 재단을 대표하는 거점 세종학당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NS 운영의 경우 현지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함께 인스타그램 활동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틱톡(Tik Tok) 같은 유행 OTT의 장점을 이용해 세종학당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 째, 한국문화원과 거점 세종학당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기관의 특징과 장점에 맞는 기관 운영을 해야 한다. 거점 세종학당이 생긴 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역할 인수인계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거나 각 기관의 관내 사업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크숍 같은 행사 실적으로 역할 이전이 관찰되었는데 앞으로 현지 세종학당들을 연결시키는 행사 등 거점 세종학당의 의의를 보다 확고히 긍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현지 대학과 사설 어학원과의 관계에서 세종학당의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교육기관들과 차별화된 교육 사업, 문화 사업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학과 소지 대학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는 현재 이런 대학교들 간에 매년 개최되는 ‘한글날’ 행사에 세종학당의 학습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세종학당은 학당의 학습자를 이런 행사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만, 학당 내 학습자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외부 기관과 외부인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체 추진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세종학당에서 기관의 운영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면, 보다 건전한 재외공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학당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세종학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재단에서부터 자료 공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제공을 지원해주고, 탑-다운 방식으로 소속 기관들을 관철하면 세계인이 세종학당뿐만 아니라 한국어, 한국문화를 알아보는 데,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함의

본 연구는 베트남 세종학당 관련 학술논문이 적고 학위논문이 없는 상황을 인식하는 전제에 시작하였고, 선행연구 검토 및 세종학당 관련 재단과 유관기관의 자료, 각종 언론보도, 기타 연구들을 최대한 많이 익히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족함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가장 신뢰할 만한 소스는 재단의 자료라고 판단되는데, 베트남 지역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종합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분석보고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에 소개된 세종학당들의 정보를 모을 수 있고 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보가 비교

적 많은 성공 사례들에 연구가 편중되었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스스로 느꼈다. 앞으로 재단의 자료 공개에 대한 진전이 있고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가로 나오면 본 연구의 한계점들이 보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을 다루는 최초 논문이 아니지만 베트남 지역에서만큼은 베트남 전역 세종학당을 연구하는 첫 학위논문이고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자료로서 기존 연구 자료에 참고할 만한 문헌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

또한 세부 연구 영역으로 유형별, 지역별 세종학당을 다룸으로써 새로운 연구 여지를 개척하고 기존 연구 방법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두어 향후 베트남 및 다른 나라의 세종학당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신선한 연구방법을 고민하고 연구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논문

- 강현주, 이경, 류선숙. (2020). “결혼이민자를 위한 입국 전 한국어 능력 시험 개발 연구: 세종학당 학습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6(2), 49-81.
- 강효식. “문화상호주의 기반 세종한국어 문화 교육과정의 개발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2018.
- 김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2019.
- 김용경. (2011). “오사카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특성 연구.” 한말연구, 28, 25-59.
- 김재욱.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현황과 발전 방안.” 동남아연구 22.3 (2013): 387-410.
- 김형기. “중국 하얼빈 세종학당의 교육 활동.” 청람어문교육 0.0 (2017): 273-301.
- 김형섭. “한국의 대외문화 정책: 문화교류 및 국가브랜딩 기반 구축을 위한 러시아에서의 세종학당.” Rōsiaō Munhak Yōn'gu Nonjip = Rusistika (2016): 169-94.
- 노정은, 이인혜, 최윤정, 곽혜윤, 김지예. (2021).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운영 현황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83, 39-64.
- 마텔린 솔라노 아센시오.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의 문화 외교: 칠레 세종학당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 박춘태, 권연진. “한국어 국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95 (2014): 99.
- 변지영. “교육공공외교로서 해외 한국어 보급의 국가별 배분 요인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8.
- 성서빈. “해외 파견 한국어교원의 정체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

- 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7.
- 성혜진. (2019). “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종학당 정책집행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집행기관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6(1), 213-240.
- 장미경, 최윤정. (2021). “세종학당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2007~2020년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3, 161-201.
- 장미경. “국외 일반 목적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제언 -세종학당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6 (2016): 80.
- 장미경. “국외 한국어교육 기관 문화 보급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7 (2017): 521.
- 장소원, 원미진, 김은애, 김수영. (2019). “세종학당 여행한국어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설계.” 언어와 문화, 15(2), 247-270.
- 양혜윤. “비대면 실시간 화상 한국어 수업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
- 이승연, 김희선, 이동은. “국외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세종학당 체험중심문화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59 (2015): 197-220.
- 윤영주. “주한 외국문화원의 언어교육과 세종학당 비교 연구.” 교육문화연구 22.4 (2016): 213-45.
- 이해영. “중국 칭다오 지역의 세종학당 운영 현황.”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08 (2008): 697.
- 윤향희. “베트남에서 한국어교육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 11권5호 (2020): 1935-49.
- 전영근.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교 세종학당 현황과 발전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08 (2008): 707.

하채현, 이무조. (2013).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 -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 언어와 문화, 9:3: 329-352.

Tran Thi Huong, 이윤진 (2017).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어문논총(30), 229-255.

-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KF),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1 한류백서>

세종학당재단, 2013년, 2014년, 2017년, 2019년, 2020년 <연차보고서>

세종학당재단, <2020 해외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지역별 세종학당 역할 확대 방안 연구>

세종학당재단, <2020 세종학당 특성화사업 결과자료집>

한국국제교류재단(KF), <2021 지구촌 한류현황> 분석보고서

- 언론보도

강나리. “세종학당 전 세계 82개국 234개소로 확대…5개국 처음 진입.”

Korean Spirit, 2021.06.10.,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3732>

강성철. “세종학당재단, 수교 30주년 기념해 베트남서 한국어 교육 워크숍” . 연합뉴스, 2022.03.29.,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9132800371>

강성철. “외국어도 모르면서 해외 파견된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무려 30%.” 연합뉴스, 2020.10.16.,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6144500371>

강성철. “ ‘신종 코로나 여파’ ...동티모르 봉사중단-中세종학당 휴교.” 연합뉴스, 2020.02.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6156300371>

강충구. “베트남·팔레스타인에 협업형 세종학당 지정.” Korea Higher

Education Times, 2021.01.03.,
<http://korea.khe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
 마스터. “원광보건대, 올해 베트남 호찌민 신규 세종학당 선정.” 익산신문,
 2021.06.10.,
http://iksan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62&idx=53709
 민영규. “베트남,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초3부터 교육 가능” . 연합뉴스,
 2021.03.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4164800084>
 박명기. “한글교육 요람 ‘세종학당’ , 베트남 등 아세안 4개국 8개소 새로
 문 활짝” , Asean Express, 2021.06.11.,
<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6679>
 신하영, 해외 한국어 학습자 16만명…교육부 “30개국에 교재 보급” , 이데일리,
 2021.06.1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0726629080408&mediaCodeNo=257>
 이종길. “세종학당 18개국 26곳 추가 조성…베트남·우즈벡 거점으로.”
 아시아경제, 2021.06.09.,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0915372782080>
 이희용. “ ‘글로벌 언어전쟁’ 대응 과제는” . 연합뉴스, 세종학당 10년(2),
 2017.12.18.,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5000600371>
 연합뉴스, “문체부, 한국어교재 인증제 도입으로 품질 높인다” , 매일경제,
 2020.09.01.,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9/902491/>
 연합뉴스, “세종학당재단, 팔레스타인-베트남에 협업형 세종학당 지정” ,
 매일경제, 2021.01.0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3183/>
 조영은. “서정대, 베트남 짜빈대와 ‘짜빈 세종학당’ 운영.” UNN,
 2021.08.23.,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4332>
 진보연. “이상헌 의원, 세종학당 예산 부족 지적… “본부는 인력난, 해외

개소는 재정난.” 서울문화투데이, 2021.10.06.,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04>
해외문화홍보원, 지구촌 한류팬 1억5000만 명 돌파 . . . 10년 새 17배
증가, 2022.03.04.,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0889>

- 기타 인터넷 자료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 . 국
회토론회 자료집. 2021.08.19.
정종권, 이규림. “신남방 한국어 교육 정책” . <2021 세계한국어한마당>
발표10. 2021.10.08.
김지형. “비대면 시대의 한국어 교육의 전망과 과제” . <2021 세계한국어
한마당> 발표 09.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베트남인은 어떤 외국어 공부를 선호할까?” ,
2021.08.03.,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0054
2015,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인터뷰
<http://kr.people.com.cn/n/2015/0813/c203219-8935674.html>
김은지, 세종학당 교재의 변천과 문법 교육 방법, 세종학당재단 콘텐츠
지원부.
박혜영, 정현석, 석주영. 언택트(Untact) 시대의 세종학당 비대면 한국어
교육 소재,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지원부.
재단, 베트남 내 한국어 제1외국어 채택 16개 중·고교에 한국문화 수업
지원
https://www.ksif.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9220000003592&bbsId=BBSMSTR_00000000071&pageIndex=1
진대연(질문자), 한국어 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다: - 강현화 세종
학당재단 이사장 -, 지금 이 사람,
https://www.korean.go.kr/nkview/nklife/2019_1/29_0104.pdf, 71-97.

소식지, 사업마당, 알림마당 등 세종학당재단 홈페이지
베트남 지역 세종학당들의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

ABSTRACT

A study on the King Sejong Institute in Vietnam: Analysing current operations and suggesting further improvements

NGUYEN THI THANH TAM

Korean Studies Major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operating conditions of King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and to suggest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Before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King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this paper first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culture, then identified the operation of King Sejong Institutes throughout the world. With the onset and expansion of Hallyu (Korean Wave) from the late 1990s, the demand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has been increasing consist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promoted related projects abroad

to sprea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broad, and ‘King Sejong Institute’ is a project among these. King Sejong Institute started with 13 branches in 3 countries in 2007 and has expanded to 234 branches in 82 countries covering 5 continents around the world as of June 2021. While cooperating with Korean institutions, companies, organizations, and local institutions, King Sejong Institute overseas experienced several difficulties, and the Foundation is making great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Start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King Sejong Institutes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2010, there are currently 21 branches of King Sejong Institute in Vietnam – the largest in the world. King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have also grown along with Hallyu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operating conditions of King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I first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culture in Vietnam. Vietnam is one of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the earliest dissemin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s an institution in charge of disseminat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 the local area, King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are receiving a lot of support from the foundation in all aspects, such as support of developing various curriculum, teaching materials, and effective operation, etc.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vide a deep perspective on King Sejong Institute in Vietnam, four representative operation cases in the reg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tensively. The four selected King Sejong Institutes are Haiphong King Sejong Institute in the northern region, Quy Nhon King Sejong Institute in the central region, King Sejong Institute Center in the southern region, and King Sejong Institute of the

Korean Cultural Center. Haiphong King Sejong Institute was selected as a representative case among King Sejong Institutes in the northern region as there are educational projects that have been successfully promoted in connection with partner companies and a positive tren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has been detected. Quy Nhon King Sejong Institute was selected because it is a successful collaboration type King Sejong Institute between Yongsan-gu Office and the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In the case of King Sejong Institute Center, it was established only three years ago, but was introduced because of the dazzling achieve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er. The four case – King Sejong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Center in Vietnam was selected because of its longest process of development. In this paper, it was identified in comparison with King Sejong Institute Center as two branches share some commons in operating roles.

While King Sejong Institutes in Vietnam have achieved splendid achievements over the past 12 years, there are also some problems. For example, there are problems in division of roles between operating institutions, which was also observed in King Sejong Institutes in other countries. Besides, there are problems of regional bias in establishing institutes, and the problem of subsidy settlement. Furthermore, there are problems with the integration of the institute name among branches and also problems regarding to the institute's homepage oper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ed six suggestions as below.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King Sejong Institutes in blind spots and emerging-potential areas in addition to cities with high demand for designating new King Sejong Institutes in the future.

Second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al programs, finding local customized demands in various existing educational courses and creating courses such as local language-Korea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course are suggest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name of the institute and the site operation activities.

Fourthly, a division has to be made to divide the roles of King Sejong Institute of the Cultural Center and King Sejong Institute Center.

Fifthly, King Sejong Institute should prepare a unique event of itself to flatter its characteristic with private Korean education schools, universities and related institutions.

Lastly, this paper suggests King Sejong Institut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local King Sejong Institutes, and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to public more information and data.

Keywords: King Sejong Institute, King Sejong Institute in Vietnam, Korean Education.

Student Number: 2020-26692.